



# 부 록

은혜로 달려온 100년

성심으로 달려갈 100년

## 1. 교역자 명단

- (1) 역대 담임교역자(목사와 조사)
- (2) 역대 부교역자 명단
  - ① 남 부교역자
  - ② 여 부교역자
  - ③ 교육목사
  - ④ 남 교육전도사
  - ⑤ 여 교육전도사
- (3) 후원 선교사 명단
- (4) 경산교회출석 은퇴목사
- (5) 경산교회출신 목사명단

## 2. 장로명단

- (1) 원로장로
- (2) 시무장로
- (3) 협동장로
- (4) 경산교회출석 은퇴장로
- (5) 경산교회출신 장로명단

## 3. 영수명단

### 4. 집사명단

- (1) 장립집사
- (2) 협동집사

### 5. 권사명단

- (1) 시무권사
- (2) 협동권사
- (3) 명예권사

### 6. 서리집사 명단 (2009년 9월 16일 현재)

- (1) 남 서리집사
- (2) 여 서리집사

### 7. 역대 사기편찬위원

### 8. 연 혁

### 9. 참고문헌

### 10. 특별기고



## 1. 교역자명단

### (1) 역대 담임교역자(목사와 조사)

대수	이름	시무기간	비고
제1대	안의와(Jame E Adams)	1909~1905	선교사
	정재순	1909~1911	조사(담임교역자)
	박덕일	1912~1913	조사(담임교역자)
	박승명	1913~1915	조사(담임교역자)
제2대	김병농	1915 봄~1916.3	임시목사
제3대	서성오	1916.5~1920.12	임시목사
제4대	염봉남	1921.1~1923.1.6	제1대 위임목사
제5대	서성오	1923.1~1923.6.14	제2대 위임목사
제6대	김영옥	1923.6~1925.1.8	임시목사
제7대	염봉남	1925.2~1925.12	임시목사
제8대	김용규	1926.1~1931.12	제3대 위임목사
	라이온(William B. Lyon)	1931.5.25~1932	동사목사
제9대	윤영문	1932.7~1938.12	제4대 위임목사
제10대	양재엽	1938.12~1940.12	제5대 위임목사
제11대	이상엽	1941.1~1942.12	임시목사
제12대	이명석	1942.12.20~1946.3	제6대 위임목사
	현대용	1946.7~1946.12	
제13대	오태환	1947.2~1951.8.30	제7대 위임목사
제14대	김삼대	1951.10.2~1953.12.16	제8대 위임목사
	윤철주	1952.6.6~1953.9.17	동사목사
제15대	최동진	1954.1.1~1957.9.25	제9대 위임목사
제16대	김형식	1957.10.8~1958.10.12	제10대 위임목사
제17대	권신찬	1959.2~1960.6.1	임시목사
제18대	김찬명	1960.7~1962.11.3	임시목사
제19대	김기식	1962.12.6~1971.9.15	제11대 위임목사
제20대	이만천	1971.11.6~1986.6.16	제12대 위임목사
제21대	이기봉	1986.11.6~1998.12.15	제13대 위임목사
제22대	박세봉	1999.4.1~2009.12.13	제14대 위임목사

(2) 역대 부교역자

① 남 부교역자

번호	이름	직명	시무기간	비고	취임시담임목사 사임시담임목사
1	김명득	전도사	1935.1~1937.8.1		윤영문
2	정인명	전도사	1936.12~1937.12.27		윤영문
3	김순풍	전도사	1951~1952.4		김삼대
4	김광훈	전도사	1955.3~1956.3.11		최동진
5	정주경	전도사	1956.9.3~1958.6.25	대구문화교회로 전임	최동진 김형식
6	이봉학	전도사	1958.7.1~1959.6.12	명예전도사 1958.3.24~1959.6.12 협동장로로 시무	김형식
7	정주경	전도사	1961.4.9~1962.6.13	명예전도사	김찬명
8	이원상	전도사	1966.1.30~1968.6.23	도미유학	김기식
9	김주철	전도사	1969.4~1970.9.9	영천대창교회 개척	김기식
10	조정남	전도사	1972.4.1~1976.10.15	의성고현교회로 전임	이만천
11	박인표	전도사	1977.2.16~1979.1.5	육동교회로 전임	이만천
12	남영섭	전도사	1979.1~1980.1.16	대구성지교회로 전임	이만천
13	김석진	전도사	1980.2~1981.8.30	강도사 인허 가일교회로 전임	이만천
14	홍승철	전도사	1983.1~1984.5.24	청송화목제일교회 담임교역 자로 전임	이만천
15	김한봉	전도사	1984.8.5~1986.10.8	강도사 인허, 목사장립 부산부전교회로 전임	이만천
16	김복규	전도사	1990.12.16~1994.4	강도사 인허, 목사장립 부목사로 계속시무	이기봉
17	최춘수	부목사	1994.9.4~1995.4.30	부산남부민중양교회로 전임	이기봉
18	이경우	강도사	1995.8.4~1996.9.30	목사장립 부목사로 계속시무	이기봉
19	이근수	부목사	1996.11.1~1999.12.28	사도교회 개척	이기봉 박세봉
20	박형렬	전도사	2000.1.1~2001.12.30	강도사 인허, 목사장립	박세봉



21	권역중	부목사	2000.1.2~2000.12.24	임마누엘교회 개척	박세봉
22	장수호	전도사	2001.1.21~2001.12.19	강도사 인허 구리시에일교회로 전임	박세봉
23	송정목	부목사	2002.1.1~2003.12.28		박세봉
24	최상현	전도사	2002.1.3~2003.11.23	대구아멘교회로 전임	박세봉
25	신재규	부목사	2004.1.4~2005.12.31	천안장로교회로 전임	박세봉
26	강상동	부목사	2004.2.1~2005.12.31	왜관교회로 전임	박세봉
27	오영주	부목사	2006.1.1~2006.11.26	화원교회로 전임	박세봉
28	정종재	부목사	2006.1.15~2008.4.30	서울성복교회로 전임	박세봉
29	김종대	부목사	2007.1.7~2008.8.24	공주중앙장로교회로 전임	박세봉
30	이재돈	부목사	2008.4.27~		박세봉
31	주필돈	강도사	2008.11.28~	목사장립 부목사로 계속시무	박세봉

## ② 여 부교역자

번호	이름	직명	시무기간	비고	취임시담임목사 사임시담임목사
1	?	전도부인	1933.3~1933.8	전도부인으로만 기록	윤영문
2	김선애	전도부인	1934.8~1935.7.7		윤영문
3	양봉림	전도부인	1935~1936.7.5		윤영문
4	윤남조	전도부인	1936.12~1939.1.15		윤영문 양재엽
5	이위련	전도부인	1939.4.1~1940.12		양재엽
6	박복원	전도부인	1941.9~1943.12		양재엽
7	김순덕	전도부인	1944.4.~1946.1.6		이명석
8	강정애	전도사 전도부인	1946.1.~1946.11.24		이명석
9	김순덕	전도부인 여전도사	1946.12~1948.3		오태환
10	박복원	전도사	1949.12~1950.11.19		오태환
11	허영희	전도사	1951.2~1952.6.15		오태환 김삼대

12	김영희	전도사	1951.5.13~1952.1.6		오태환 김삼대
13	주선애	전도사	1953.1~1953.6.21		김삼대
14	김성옥	전도사	1954.8.30~1958.1.29		최동진 김형식
15	주성애	전도사	1958.2.14~1961.2		김형식 김찬명
16	임복달	전도사	1961.9~1964.9.20		김찬명 김기식
17	조차남	전도사	1965.3~1967.12.17		김기식
18	유위정	전도사	1968.6~1969.10.4	대구문화교회로 전임	김기식
19	김창덕	전도사	1969.10~1971.9		김기식
20	한제동	전도사	1974.4~1982.12.28		이만천
21	윤혜숙	전도사	1982.2.4~1982.11.26		이만천
22	이영숙	전도사	1983.2.15~1989.8.27	수원고메리교회로 전임	이만천 이기봉
23	김청자	전도사	1989.11.21~1992.12.15	대구범어교회로 전임	이기봉
24	황분희	전도사	1993.1.3~1996.9.30		이기봉
25	장묘임	전도사	1996.11~2000.4.30		이기봉 박세봉
26	박득숙	전도사	2000.5.7~	현 재	박세봉
27	김재은	전도사	2007.6.1~2007.12.31		박세봉

**\* 길공주 여전도사(1943. 하반기~1945. 8. 15이전, 이명석 목사)**

길공주 여전도사는 평북 자성군 중강읍 출신으로 일본 교토산과학교 재학 중 (당시30세) 이재복(교토신학대 재학)과 결혼하여 1943년 하반기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경산교회 여전도사로 시무하였으나 길공주 여전도사에 대한 기록은 당회록, 제직회록 기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길공주 여전도사는 이재복 목사와 함께 일하고자 서울로 갔다고 전해진다.



③ 교육목사

번호	이름	직명	시무기간	비고	취임시담임목사 사임시담임목사
1	이정훈	교육목사	2006.1.1~2008.11.30	대구경운교회로 전임	박세봉

④ 남 교육전도사

번호	이름	시무기간	비고	취임시담임목사 사임시담임목사
1	신효철	1981.1.4~1982.12		이만천
2	이칠성	1981.11.1~1982.12		이만천
3	최상호	1984.1~1987.3.11	대구서문교회로 전임	이만천 이기봉
4	이동호	1987.1.4~1988.12.25	총신대학원에 진학	이기봉
5	이덕영	1987.1.4~1988.12.25	총신대학원에 진학	이기봉
6	오준환	1987.5.24~1988.8.31		이기봉
7	유영주	1988.10.2~1989.10.8	서울수유중앙교회로 전임	이기봉
8	이기락	1989.1.1~1990.12.30		이기봉
9	손은목	1989.1~1990.7.29	의성군교회로 전임	이기봉
10	한성만	1989.11.5~1991.12.15		이기봉
11	권성중	1990.9.23~1992.12.27		이기봉
12	채종업	1991.4.7~1991.12.15		이기봉
13	임성호	1992.1.12~1993.12.26	신학대학원에 진학	이기봉
14	손동현	1992.6.14~1993.12.26	신학대학원에 진학	이기봉
15	허정문	1993.2.7~1997.10.26		이기봉
16	김신용	1994.1.2~1996.9.30		이기봉
17	신종민	1994.1.2~1995.6.25		이기봉
18	고성현	1995.6.25~1996.12.8		이기봉
19	조경래	1996.10.6~1997.12.28		이기봉
20	유도훈	1997.3.23~1999.3.28		이기봉

21	김종인	1998.1.4~1998.12		이기봉
22	염종득	1998.1.4~1999.12.26		이기봉 박세봉
23	남기연	1999.2.7~1999.8.29		박세봉
24	박형렬	1999.5.23~2000.12.31	전임전도사로 취임(2001.1.1)	박세봉
25	김종균	1999.9.19~2001.2.4		박세봉
26	최상현	2000.1.2~2001.1.12	전임전도사로 취임(2002.1.13)	박세봉
27	이종천	2001.2.18~2002.3.31	한양대 편입	박세봉
28	김제호	2002.1.20~2003.11.30		박세봉
29	조동호	2002.4~2005.12.31	대구부광교회로 전임	박세봉
30	성정식	2003.12.7~2008.11.30		박세봉
31	한희섭	2008.11.23~	현 재	박세봉
32	이병호	2008.9.21~		박세봉

⑤ 여 교육전도사

번호	이름	시무 기간	비 고	취임시담임목사 사임시담임목사
1	조신숙	1993.1.3~1993.6.27		이기봉
2	황분희	1993.1.31~1996.9.30	전임여전도사와 유치부교육 전도사를 겸임	이기봉
3	박현진	1997.1.5~1998.12.13		이기봉
4	유정혜	1999.1.3~2001.2.4		박세봉
5	박현애	2001.2.18~2002.3.31	숭실대 편입	박세봉
6	강선옥	2002.4~2004.6.30		박세봉
7	김재은	2004.10.3~2007.5.31 2008.1.1~2008.11.30	전임여전도사로 취임, 전임여전도사에서 유치부 교육전도사로 복귀	박세봉
8	피승화	2009.1.4~	현 재	박세봉



(3) 후원 선교사 명단

번호	이름(직책)	선교국명 및 지명	선교활동 기간	비고
1	이은택 목사(선교사)	남아공 South Africa 짐바브웨 Zimbabwe 동티모르 East Timor	1994.3~2009	협력 선교사 → 주선교사
2	김홍조 평신도 선교사 (태권도 교관)	인도 India (Bangalore)	1996.6~1997.12	주선교사
3	최도웅 장로	인도 India (Bangalore)	1998.6.21~	주선교사
4	조은호 목사(선교사)	인도 India (Delhi)	2002.7~	협력 선교사
5	최병권 목사(선교사)	중국 China	2005.7~	협력 선교사
6	최의웅 목사(선교사)	필리핀 Philippines	2009.3.1~	협력 선교사
7	박종규 목사(선교사)	인도네시아 Indonesia	파송예정 (2009.5.17 부임)	파송예정 선교사

(4) 경산교회 출석 은퇴목사

번호	이름	은퇴 후 경산교회 출석연도	최종시무교회
1	정주경	1999. 2~	제1가나안 농군학교 교목실 (가나안 교회)
2	김한동	2005. 5~	산정교회



(5) 경산교회 출신 목사 명단

번호	이름	시무교회	비고
1	권영삼	영은교회	경기도 수원
2	김반석	면류관교회	서울남노회
3	김삼철	가시리교회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2072-1
4	김상철	용현교회	경남 합천 용현
5	김상수	초곡교회	구미노회
6	김병태		미국 캘리포니아(은퇴)
7	김의철	신흥교회	남서울노회
8	김재규	이웃교회	대구수성노회
9	김종학	창성교회	동서울노회
10	김주언	낙곡중앙교회	별 세
11	노종래		
12	박광우	내일교회	대구노회
13	배석주	부산남성교회	남부산노회
14	백시웅	삼각산 기도원	은 퇴
15	서기열	성은교회	경안서노회
16	송시중	수영로교회	남부산노회
17	송태욱	장지교회	평안노회
18	신대호	동곡교회	경청노회
19	신중호	황금교회	대구수성노회
20	신희철	미시칸장로교회	미국 미시칸 한인장로교회
21	양종필	궁유교회	진주노회
22	유재원	하령교회	경중노회
23	이봉학		별 세
24	이완우		재 미
25	이우만	대현교회	남대구노회
26	이원상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미국 워싱턴
27	이은택	동티모르 선교사	경청노회
28	이재만		
29	정주경	가나안교회	은 퇴



30	조영길	신흥교회	전북 동서노회
31	조은호	인도델리선교사	인도델리(대구북부교회파송)
32	조희호		재 미
33	진영준	율단 선교사	
34	최상호	신현교회	서울노회
35	김연옥	삼광교회	경평노회
36	이민수	수원제일교회	수원노회
37	이경선	안심교회	동대구노회

## 2. 장로명단

### (1) 원로장로

대수	이름	시무기간	비 고	취임시 담임목사 사임시 담임목사
1	전성문	1998.11.27~	현 재	이기봉
2	양일용	2008.1.1~	현 재	박세봉

### (2) 장로

대수	번호	이름	시무기간	비 고	취임시 담임목사 사임시 담임목사
1	1	김성률	1918.8.4~1920.10.17	사 임	서성오
2	2	김성열	1920.8~1924.6.30	사 임	서성오 김영옥
3	3	엄상필	1921.1.24~1929.3.29	사 임	염봉남 김용규
4	4	김윤서	1923.1.7~1928.4.1	사 임	서성오 김용규
5	5	이종성	1923.7.15~1955.3.6 1933.5.13(사임) 1936.12.27(재취임)	이 명	김영옥 최동진
6	6	한명수	1927.8.14~1953.4.9	별 세	김용규 김삼대
7	7	정원서	1935.1.30~1952.12.7	별 세	윤영문

8	8	안상기	1936.12.27~1982.12.24 1969.12.25(시무정지) 1973.3.11(시무정지해제)	별 세	윤영문 이만천
9	9	강영명	1944.1.30~1949.3.30	이 명	이명석 오태환
	10	최재학	1944.1.30~1959.10	이 명	이명석 권신찬
10	11	정태영	1948.5.15~1950.5.29	별 세	오태환
	12	서용학	1948.5.15~1955.9.11	이 명	오태환 최동진
11	13	김두환	1950.11.26~1953.11.15	이 명	오태환 김삼대
12	14	김영훈	1954.2.28~1958.2.19	이 명	최동진 김형식
13	15	이성봉	1955.5.19~1975.8.12	별 세	최동진 이만천
	16	강의덕	1955.5.19~1961.12.17	이 명	최동진 김찬명
14	17	정종환	1955.11.16~1983.2.23	별 세	최동진 이만천
15	18	신길순	1961.11.9~1984.7.17	별 세	김찬명 이만천
16	19	안건수	1962.5.30~1964.12.20	사 임	김찬명 김기식
17	20	양해술	1963.5.19~1969.1.1	사 임	김기식 이기봉
	21	박치룡	1963.5.19~1973.3.28	사 임	김기식 이만천
18	22	전성문	1970.4.28~1998.11.27	정년은퇴와 함께 원로장로로 추대	김기식 이기봉
19	23	양해술	1974.6.30~1989.8.27 (재취임)	사 임	이만천 이기봉
20	24	배경학	1977.4.26~1992.10.8	정년은퇴	이만천 이기봉
	25	박종길	1977.4.26~1996.12.29 (1982.6.6~1983.10.30 일본 외유로 장로직 휴직)	정년은퇴	이만천 이기봉



21	26	방태호	1979.5.24~1994.12.31	정년은퇴	이만천 이기봉
	27	안문식	1979.5.24~1995.12.31	정년은퇴	이만천 이기봉
22	28	송석근	1987.11.26~2002.3.31	정년은퇴	이기봉 박세봉
	29	양일용	1987.11.26~2007.11.30	조기은퇴 원로장로로 추대	이기봉 박세봉
	30	김 변	1987.11.26~2000.10.29	정년은퇴	이기봉 박세봉
	31	이정우	1987.11.26~1992.10.8	정년은퇴	이기봉
23	32	박해동	1992.10.8~	현 재	이기봉
24	33	이문수	1994.4.28~	현 재	이기봉
	34	신동욱	1994.4.28~	현 재	이기봉
	35	박달현	1994.4.28~2005.3.14	별 세	이기봉 박세봉
	36	소병준	1994.4.28~2007.1.14	조기은퇴	이기봉 박세봉
	37	정주성	1994.4.28~2008.12.28	조기은퇴	이기봉 박세봉
	38	이재홍	1994.4.28~2002.10.27	정년은퇴	이기봉 박세봉
25	39	김종태	1998.11.27~2006.12.17	조기은퇴	이기봉 박세봉
	40	배석윤	1998.11.27~2008.12.28	조기은퇴	이기봉 박세봉
26	41	김정수	2000.11.23~	현 재	박세봉
	42	허 원	2000.11.23~2006.7.9	정년은퇴	박세봉
27	43	정경현	2003.5.3~	현 재	박세봉
	44	설천복	2003.5.3~	현 재	박세봉
	45	노철균	2003.5.3~	현 재	박세봉
28	46	박의순	2009.9.15~	현 재	박세봉

(3) 협동장로

대수	번호	이름	시무기간	비고	취임시 담임목사 사임시 담임목사
1	1	이봉학	1958.3.24~1959.6.12	사임	김형식
2	2	박치룡	1960.9.18~1963.5.19	장로취임	김찬명 김기식
3	3	이정우	1985.4.26~1987.11.26	장로취임	이만천 이기봉
4	4	유태삼	1988.12.22~1991.12.29	이명	이기봉
5	5	김정덕	2001.6.24~2003.5.31	정년은퇴	박세봉
	6	김정봉	2001.6.24~2002.3.31	이명	박세봉
6	7	민충남	2009.5.31~	현재	박세봉

(4) 경산교회출석 은퇴장로

번호	이름	은퇴 후 경산교회 출석연도	최종시무교회
1	이창세	1995~	자인제일교회
2	이경우	2006. 4~	경산새소망교회

(5) 경산교회출신 장로명단

번호	이름	시무교회	비고
1	곽도영	수정교회	대구노회
2	김신일	대구 범어교회	별세
3	김영숙	대봉교회	은퇴
4	김인철	새순교회	울산노회
5	김정봉	아멘교회	대구 수성노회
6	김종국	나눔과섬김교회	경산시 백천동 월드메르디앙
7	방인대	람원교회	서경노회
8	서인호		서울
9	송정일	드림교회	대구 수성노회
10	신윤덕	공항교회	동대구노회
11	안성근	미국	별세



12	안성대	대성교회	대구 중노회
13	양종원	중부교회	대구노회
14	엄세현	서문교회	경북노회
15	엄재권	성산교회	별 세
16	오병용		별 세
17	이승우	대봉교회	별 세
18	이창우	대봉교회	별 세
19	이영찬		인천시 남구 주안2동 496-3
20	장태휘	읍천교회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204-3
21	조홍기		별 세
22	최순호	한길교회	만촌1동 652-2
23	최홍석	청도 대성교회	별 세
24	한시영	성문교회	동평양노회
25	한시완	주님의교회	평북노회
26	한시은	경산중앙교회	별 세
27	허남형	경산중부교회	경산시 삼남동
28	허 영	경산서부교회	별 세

### 3. 영수명단

대수	번호	이름	시무기간	취임시 담임목사 사임시 담임목사
1	1	서재준	1909. 봄~	안의와 선교사
2	2	김성얼	1913~	안의와 선교사
	3	이경부	1913~	안의와 선교사
	4	신기언	1913~	안의와 선교사

#### 4. 집사명단

##### (1) 장립집사

대수	번호	이름	시무기간	비고	취임시 담임목사 사임시 담임목사
1	1	김성원	1924.2.24~1930.10.30	사임	김영옥 김용규
2	2	정희순	1940.9.15~1941.9.11	이명	양재엽 이상엽
	3	최재학	1940.9.15~1944.1.30	장로장립	양재엽 이명석
3	4	송석근	1979.5.24~1987.11.26	장로장립	이만천 이기봉
	5	허남형	1979.5.24~1987.4	이명	이만천 이기봉
4	6	신동욱	1987.11.26~1994.4.28	장로장립	이기봉
	7	소병준	1987.11.26~1994.4.28	장로장립	이기봉
	8	박달현	1987.11.26~1994.4.28	장로장립	이기봉
	9	박해동	1987.11.26~1992.10.8	장로장립	이기봉
	10	이문수	1987.11.26~1994.4.28	장로장립	이기봉
	11	정주성	1987.11.26~1994.4.28	장로장립	이기봉
5	12	이재홍	1992.10.8~1994.4.28	장로장립	이기봉
	13	김종태	1992.10.8~1998.11.27	장로장립	이기봉
6	14	김정수	1994.4.28~2000.11.23	장로장립	이기봉 박세봉
	15	허원	1994.4.28~2000.11.23	장로장립	이기봉 박세봉
	16	배석윤	1994.4.28~1998.11.27	장로장립	이기봉 박세봉
	17	유재호	1994.4.28~1999.12.31	정년은퇴	이기봉 박세봉
	18	이인수	1994.4.28~2005.3.5	별세	이기봉 박세봉
	19	설천복	1994.4.28~2003.5.3	장로장립	이기봉 박세봉



7	20	노철균	1998.11.27~2003.5.3	장로장립	이기봉 박세봉
	21	박의순	1998.11.27~2009.9.15	장로장립	이기봉 박세봉
	22	김기한	1998.11.27~	현 재	이기봉
8	23	정경현	2000.11.23~2003.5.3	장로장립	박세봉
	24	장정수	2000.11.23~	현 재	박세봉
	25	김재수	2000.11.23~	현 재	박세봉
	26	신동윤	2000.11.23~	현 재	박세봉
	27	김형렬	2000.11.23~	현 재	박세봉
	28	방영원	2000.11.23~	현 재	박세봉
9	29	김용배	2003.5.3~	현 재	박세봉
	30	이상진	2003.5.3~	현 재	박세봉
	31	이원국	2003.5.3~	현 재	박세봉
	32	박영태	2003.5.3~	현 재	박세봉
	33	김호근	2003.5.3~	현 재	박세봉
	34	문기찬	2003.5.3~	현 재	박세봉
	35	이만태	2003.5.3~	현 재	박세봉
	36	이경우	2003.5.3~	현 재	박세봉
	37	최기문	2003.5.3~	현 재	박세봉
	38	송진욱	2003.5.3~	현 재	박세봉
10	39	박지순	2009.9.15~	현 재	박세봉
	40	강종수	2009.9.15~	현 재	박세봉
	41	전병렬	2009.9.15~	현 재	박세봉



(2) 협동집사

번호	이름	시 무 기 간	비 고	취임시 담임목사 사임시 담임목사
1	강경구	1987.12.20~1988.12.31		이기봉
2	박종수	1988.12.22~1989.6		이기봉
3	정경현	1995.6.25~2000.11.23	집사장립	이기봉 박세봉
4	한성조	2003.1~	현 재	박세봉
5	이석호	2004.1.25~2009. 12	이 명	박세봉
6	이운중	2007.1.7~	현 재	박세봉
7	구자덕	2008.1.1~	현 재	박세봉
8	김광순	2009.1.1~	현 재	박세봉

5. 권사명단

(1)권사

대수	번호	이름	시 무 기 간	비 고	취임시 담임목사 사임시 담임목사
1	1	백귀복	1979.5.24~1985.1(~)	별 세	이만천
	2	김홍인	1979.5.24~1982.7.5	별 세	이만천
	3	김봉희	1979.5.24~1992.10.8	정년은퇴	이만천 이기봉
2	4	이옥련	1987.11.26~1996.5.15	별 세	이기봉
	5	박정옥	1987.11.26~1998.11.27	정년은퇴	이만천 이기봉
	6	신순길	1987.11.26~2003.12.7	정년은퇴	이기봉 박세봉
	7	김 열	1987.11.26~1993.12.31	정년은퇴	이기봉
	8	김분준	1987.11.26~2005.12.31	정년은퇴	이기봉 박세봉
3	9	이정화	1992.10.8~1998.11.27	정년은퇴	이기봉
	10	정외숙	1992.10.8~2008.6.1	정년은퇴	이기봉 박세봉
	11	석금주	1992.10.8~1994.4.28	정년은퇴	이기봉



	12	황덕영	1992.10.8~1996.12.29	정년은퇴	이기봉
	13	김우한	1992.10.8~1996.12.29	정년은퇴	이기봉
4	14	강정윤	1994.4.28~2001.12.30	정년은퇴	이기봉 박세봉
	15	정숙기	1994.4.28~2001.12.30	정년은퇴	이기봉 박세봉
	16	이경수	1994.4.28~2004.12.26	정년은퇴	이기봉 박세봉
	17	윤영오	1994.4.28~2004.7.11	정년은퇴	이기봉 박세봉
5	18	배주이	1998.11.27~2007.12.30	정년은퇴	이기봉 박세봉
	19	김혜순	1998.11.27~2008.7.5	별 세	이기봉 박세봉
6	20	서정숙	2000.11.23~	현 재	박세봉
	21	김복조	2000.11.23~2007.11.4	정년은퇴	박세봉
	22	이순자	2000.11.23~	현 재	박세봉
	23	이민자	2000.11.23~	현 재	박세봉
	24	김명욱	2000.11.23~2008.12.30	정년은퇴	박세봉
	25	조영선	2000.11.23~	현 재	박세봉
	26	서분조	2000.11.23~2008.12.30	정년은퇴	박세봉
	27	오성은	2000.11.23~2007.1.14	조기은퇴	박세봉
	28	주옥희	2000.11.23~2006.12.17	정년은퇴	박세봉
	29	김숙자	2000.11.23~	현 재	박세봉
	30	설희연	2000.11.23~2005.7.8	정년은퇴	박세봉
	31	윤태화	2000.11.23~	현 재	박세봉
7	32	이덕자	2000.11.23~	현 재	박세봉
	33	김차선	2003.5.3~	현 재	박세봉
	34	강순덕	2003.5.3~	현 재	박세봉
	35	손덕아	2003.5.3~	현 재	박세봉
	36	김순자	2003.5.3~	현 재	박세봉
	37	정정자	2003.5.3~	현 재	박세봉
	38	곽은애	2003.5.3~	현 재	박세봉

	39	유남옥	2003.5.3~	현재	박세봉
	40	김애옥	2003.5.3~	현재	박세봉
	41	곽정희	2003.5.3~	현재	박세봉
	42	유경생	2003.5.3~	현재	박세봉
8	43	박영순	2009.9.15~	현재	박세봉
	44	서현자	2009.9.15~	현재	박세봉
	45	이희순	2009.9.15~	현재	박세봉
	46	이순임	2009.9.15~	현재	박세봉
	47	김태순	2009.9.15~	현재	박세봉

(2) 협동권사

번호	이름	시 무 기 간	비 고	취임시 담임목사 사임시 담임목사
1	신외숙	1992.1~1992.12	정년은퇴, 별세	이기봉
2	서금희	1992.1~1993.12	정년은퇴	이기봉
3	김봉조	1992.1~1992.12.31	정년은퇴	이기봉
4	이위선	1992.1~2004.3.23	이명	이기봉 박세봉
5	정성조	1993.1~1998.11	이명	이기봉
6	이남선	2001.6.24~2009.4.19	정년은퇴	박세봉
7	함금선	2001.6.24~2002.3.31	이명	박세봉
8	박영자	2006.1.1~	현재	박세봉
9	박계화	2007.1.1~	현재	박세봉
10	강영분	2008.1.1~	현재	박세봉
11	박정숙	2009.5.31~	현재	박세봉



(3) 명예권사

대수	번호	이름	시 무 기 간	비 고	취임시 담임목사 사임시 담임목사
1	1	이위분	1994.1~1999.6.6	별 세	이기봉 박세봉
	2	이계향	1994.1~2002.9.2	별 세	이기봉 박세봉
	3	이희주	1994.1~2001.11.28	별 세	이기봉 박세봉
	4	박분남	1994.1~1999.8.5	별 세	이기봉 박세봉
	5	정연조	1994.1~1999.10.29	별 세	이기봉 박세봉
	6	서외조	1994.1~		이기봉
	7	이용선	1994.1~2002.12.31		이기봉 박세봉
2	8	김분란	2000.1~		박세봉
	9	김숙이	2000.1~		박세봉
	10	이종선	2000.1~		박세봉
	11	진순조	2000.1~		박세봉
3	12	김혜경	2000.1~2002.11.7	별 세	박세봉
	13	김효경	2000.1~2004.10.26	별 세	박세봉
	14	김원순	2000.1~2001.12.31	이 명	박세봉
	15	이월순	2000.1~2005.12.31	이 명	박세봉
4	16	최기연	2009.3.1~		박세봉
	17	이옥분	2009.3.1~		박세봉
	18	장영자	2009.3.1~		박세봉

## 6. 서리집사명단(2009. 9. 16 현재)

### (1) 남 서리집사

강광수	강대훈	강동기	강영순	강영신	구정완	권영수
금창현	김경도	김경호	김광식	김광태	김기한	김동원
김병준	김병태	김상은	김선태	김성은	김성태	김수만①
김수만②	김수현	김영환	김용호	김운학	김원출	김인호
김종우	김주식	김진규	김창성	김태수	김형식	문희영
박광순	박기현	박승동	박영백	박영수①	박영수②	박영준
박인순	박진호	박진홍	박태빈	서명빈	소승섭	신성현
신창근	심수봉	심홍식	안인주	양경석	양종후	엄재일
오만곡	우보은	유지산	유창희	윤관수	윤광렬	이경수
이교근	이국희	이상복	이성만	이성수	이승덕	이영국
이윤재	이윤호	이인환	이종석	이종일	장광희	장점효
전광석	전광희	전성덕	정영모	정우원	정홍주	조승오
조영목	조용원	조현민	차달원	차성용	채동만	최병인
최중운	홍광희	황동희				

### (2) 여 서리집사

강기영	강미숙	강수분	강종련	곽현숙	권혜주	금삼순
김경미	김경옥	김경희①	김경희②	김귀남	김귀영	김금녀
김기숙	김달순	김명순	김명옥	김명진	김미경	김미옥
김미자	김미희	김보현	김복자	김상기	심성희	김숙희
김순남	김순덕	김순래	김언열	김영숙	김영자	김옥남
김옥래	김위영	김은아	김은연	김은정	김의숙	김이조
김재희	김정선	김정숙①	김정숙②	김정옥	김정희	김종순
김춘희	김필연	김현숙	김현주	김혜진	남석순	남정조



남정희	노태분	도이자	문경애	문창희	문행돌	박경미
박금순	박금희	박명선	박미숙	박선학	박성희	박숙자
박순기	박순녀	박순진	박양순	박옥태	박윤례	박은연
박은정	박은주	박은희	박인순	박정수	박쾌선	박태순
배선화	백명희	백은주	서상연	서선미	서성태	서은이
성귀순	성삼자	소영희	송길남	손노이	손상희	손정아
신경란	신원경	신해자	심상순	심영희	심은정	안선옥
안임선	양광순	양명희	엄지은	오미숙	오상희	오정희
원수분	유혜령	유현숙	윤귀숙	윤문자	윤영선	윤영혜
음미경	이경순	이계한	이미자	이삼화	이성자	이숙자
이여수	이연숙	이영순	이옥분	이옥자①	이옥자②	이옥자③
이원수	이윤자	이윤희	이은정	이임강	이정숙	이정은
이정희	이춘희	이형애	이화자	임정숙	장문향	장병옥
장순희	장영자	전명숙①	전명숙②	전미자	전화숙	정경례
정경희	정덕희	정미용	정숙현	정연주	정영선	정영숙
정영희	정진성	정해원	조순미	조옥숙	조옥이	조향미
조현석	조희숙	주옥자	주현숙	지선희	진현주	천차연
최금선	최명옥	최영미	최영애	최원자	최은진	최재희
최정숙	최태자	하륜자	한일례	황미경	황미영	황미자
황성옥	황영미	황은실	황정희			

### 7. 역대 사기편찬 위원회

위원장	위 원	연 도	비 고	담임목사
	안상기 최재학 안성근 엄재권 정주경	1955.10.2~ 1956	별 세 별 세 별 세 별 세	최동진
	신길순 안성근 정주경 정종환	1973. 3. 7~	별 세 별 세 편찬위원(주필) 1973. 8. 12사임 1973. 8. 12부터 위원, 별 세	이만천
이기봉	박종길 방태호 안문식 양해술 전성문 배경학 김 번 소병준 양일용 신동욱 정주성	1987	별 세  별 세 별 세 별 세	이기봉
김 번	신동욱(서기) 김홍교(주필)	1988	별 세	이기봉
김 번	신동욱(서기)	1989~2000	정주경 목사가 사기편찬 기초작업 하도록 허락 (제716회 1차 임시당회, 2001. 12. 3)	이기봉 박세봉
	신동욱 정주성	2001~2005		박세봉
	신동욱 정주성 김정수	2006		박세봉
신동욱	정주성	2007~2008	정주경 목사를「경산교회 100년사」편찬주필로 선정 (제808회 정기당회, 2008. 5. 25)	박세봉
신동욱	설천복	2009		박세봉



## 8. 연혁

1909.	경북경산시 삼북동 80번지 현 위치에서 사월교회에서 분리하여 교회를 세워 삼북동 교회라 불렀다. 당시 당회장은 선교사 아담스(Rev. James Edward Adams, 안의와, 安義窩) 목사 담임교역자는 정재순 조사였다.
	사월 교회에 출석하던 김성률 가정 서재순 영수 등 30여명이 지역까지 분할하여 분리할 때가 1909년 4월 15일이였다. 처음으로 부흥회를 개최하게 되어 1944년에 개최한 당회(당회장 이명석 목사)에서 이날을 경산교회 설립기념일로 결정하였다.
1911.	사월교회에서 경영하던 계동학교가 사람이 많은 경산교회로 시설과 함께 1911년에 인수되어 경산교회 구내에서 경영하다. 후에 중방동 342-11번지 근처로 신축 이전하여 30여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신교육에 힘써 인재양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개교 16년 만에 일제의 식민지 교육탄압으로 폐교되었다.
1912.	박덕일 조사(담임 교역자) 시무(1913. 사임) 교인 약 50명
1913.	박승명 조사(담임 교역자) 시무(1915. 봄 사임)
1915. 봄	김병농(임시)목사 부임(1916. 3 사임) 본 교회를 비롯하여 사월, 지산, 사방산 4개처 교회를 담임
1916. 봄	서성오(임시)목사 부임(1920. 12 사임) 본 교회 단독목사로 시무
1917.	교인 수 130여명(세례교인 70, 학습교인 30, 원입교인 30)으로 성장, 당시대형 건물인 양철집 12칸의 예배당을 신축
1918. 8. 4	김성률 초대장로장립(1920. 10. 17 사임)
1918. 8. 18	제1회 당회개최
1918. 9. 8	제직회 개최 첫 기록
1920. 1	'삼북교회'에서 '경산읍교회'로 개명
1920. 4. 15	일주일간 김익두 목사 초청 부흥회 개최
1920. 8	김성열 장로장립(1924. 6. 30 사임)





1921. 1	염봉남 제1대(위임)목사 부임(1921. 1. 4 위임, 1923. 1. 6 사임)
1921. 1. 24	엄상필 장로장립(1929. 3. 29 사임)
1923. 1	서성오 제2대(위임)목사 부임(1923. 1. 7 위임, 1923. 6. 사임)
1923. 1. 7	김윤서 장로장립(1928. 4. 1 사임)
1923. 6	김영옥 (임시)목사 부임(1925. 1. 8 사임)
1923. 7. 15	이종성 장로장립(1955. 3. 6 이명)
1924 .2. 24	김성원 집사장립(1930. 10. 30 사임)
1924. 가을	김익두 목사 부흥회강사 초칭
1925. 6.	염봉남 (임시)목사 부임(1925. 12. 사임)
1926. 1.	김용규 제3대(위임)목사 부임(1931. 12. 사임) 주일학교 기록상 첫 교장으로 이종성 장로 임명
1927.	청년회에 대한 첫 기록
1927. 8. 14	한명수 장로취임(1953. 4. 9 별세)
1931. 2	주기철 목사 부흥회강사 초칭
1931. 5. 25	라이온(William B. Lyon) (임시동사)목사 부임(1932. 사임)
1932. 7	윤영문 제4대(위임)목사 부임(1938. 11. 사임)
1933. 1. 11	제직회 창립총회 개최
1933. 3	경산교회 첫 여전도사(이름 미상) 부임(1933. 8. 사임)
1934. 8	김선애 여전도사 부임(1935. 7. 7 사임)
1935. 1	김명득 전도사 부임(1937. 8. 1 사임)
1935. 1. 30	정원서 장로장립(1952. 12. 7 별세)
1935. 6. 8	남전도회 조직 양봉림 여전도사 부임(1936. 7. 5 사임)
1936. 12	양재엽 제5대(위임)목사 부임(1940. 12. 사임) 정인명 전도사 부임(1937. 12. 27 사임) 윤남조 여전도사 부임(1939. 1. 15 사임)
1936. 12. 27	안상기 장로장립(1982. 12. 24 별세)
1939. 4. 1	이위련 전도부인 부임(1940. 12. 사임)



1939. 10	제직회에서 예배당 신축기로 결정, 1941년 1월 석재를 구입 기공식을 계획하다가 일제의 종교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
1940. 1	찬양대를 조직
1940. 9. 15	정희순(1941. 9. 11 이명), 최재학(1944. 1. 30 장로장립) 집사장립
1941. 1	이상업 (임시) 목사 부임(1942. 12. 사임)
1941. 9	박복원 전도부인 부임(1943. 5. 2 사임)
1942.	일제의 강압으로 본 교회 종과 유기헌납 및 국방헌금 납부
1942. 12. 20	이명석 제6대(위임) 목사 부임(1943. 4. 11 위임, 1946. 3. 사임)
1943. 8. 19	일제탄압으로 집회시간을 9~12시로 하고 야간은 전폐, 명칭을 '당회'는 '장로회'로 '공동의회'는 '교회회의'로 '장로선거'는 추천자를 '교회회의' 총대가 투표
1944. 1. 30	강영명(1949. 3. 30 이명), 최재학(1959. 10. 이명) 장로장립
1944. 4	김순덕 전도부인 부임(1946. 1. 6 사임)
1945. 8. 15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은 종식되고 평화 회복
1945. 9. 2	조국광복 축하예배 청년면려회 재건창립총회
1946. 1	강정애 전도부인 부임(1946. 11. 24 사임)
1946. 7	현대용 (임시) 목사 부임(1946. 12. 사임)
1946. 12	김순덕 여전도사 부임(1949. 4. 4 사임)
1947. 2	오태환 제7대(위임) 목사 부임(1951. 8. 30 사임)
1948. 5	정태영(1950. 5. 29 별세), 서용학(1955. 9. 11 이명) 장로장립
1948. 6. 20	학생회 조직(회장 박종길)
1948. 8. 14	광복 후 다시 성전건축이 추진되어 정초식을 거행(공사는 7월 1일 시행)
1948. 9. 5	한글로 '경산 예배당' 이라고 돌로 새겨 붙임
1949. 12	박복원 여전도사 부임(1950. 11. 19 사임)
1950. 1. 30	석조예배당을 완공 헌당(90평)
1950. 11. 26	김두환 장로장립(1953. 11. 15 이명)
1950. 12	임당교회가 분립

1951. 2	허영희 여전도사 부임(1952. 6. 15 사임)
1951. 5. 13	김영희 여전도사 부임(1952. 1. 6 사임)
1951. 10. 2	김삼대 제8대(위임)목사 부임(1952. 2. 6 위임, 1953. 12. 16 사임)
1951.	김순풍 전도사 부임(1953. 4. 사임)
1952. 6. 6	윤철주 (임시동사)목사 부임(1952. 9. 17 사임)
1953. 1	주선애 여전도사 부임(1953. 6. 21 사임)
1953. 5. 25	성경구락부 설립(부장 정주경)
1953. 8.	김순덕 여전도사 부임(1954. 6. 6 사임)
1954. 1. 1.	최동진 제9대(위임)목사 부임(1954. 12. 3 위임, 1957. 9. 25 사임) 주일학교 소년부(현재 중등부) 설치(부장 정주경)
1954. 2. 28	김영훈 장로취임(1958. 2. 19 이명)
1954. 6. 11	주일학교 유치부 설치(부장 김신옥)
1954. 7. 1	경산유치원 개원(원장 최재학)
1954. 8. 30	김성옥 여전도사 부임(1958. 1. 28 사임)
1955. 3	김광훈 전도사 부임(1956. 3. 11 사임)
1955. 5. 19	이성봉(1975. 8. 12 별세), 강의덕(1961. 12. 17 이명) 장로장립
1955. 6. 16	중방동 확장주일학교 설치(부장 안건수)
1955. 11. 16	정중환 장로장립(1983. 2. 23 별세)
1956. 9. 3	정주경 전도사 부임(1958. 6. 25 사임)
1957. 10. 8	김형식 제10대(위임)목사 부임(1958. 4. 29 위임, 1958. 10. 12 사임)
1958. 2	주선애 여전도사 부임(1961. 2. 사임)
1958. 3. 24	이봉학 협동장로취임(1959. 6. 12 사임)
1958. 7. 1	이봉학 (명예)전도사 취임(1959. 6. 12 사임)
1959. 2	권신찬 (임시)목사 부임(1960. 6. 1 사임)
1959. 9	경산중앙교회 분립
1960. 7	김찬명 (임시)목사 부임(1962. 11. 3 사임)
1960. 9. 18	박치룡 협동장로취임(1963. 5. 19 장로취임)
1961. 4. 9	정주경 (명예)전도사 부임(1962. 6. 13 사임)



	경산제일교회 분립 (경산제일교회 창립일 1961. 8. 7)
1961. 9	임복달 여전도사 부임 (1964. 9. 20 사임)
1961. 11. 9	신길순 장로장립 (1984. 7. 17 별세)
1962. 5. 30	안건수 장로장립 (1964. 12. 20 사임)
1962. 12. 6	김기식 제11대 (위임) 목사 부임 (1964. 4. 29 위임, 1971. 9. 15 사임)
1963. 5. 19	양해술 (1961. 1. 1 사임, 1974. 6. 30 재취임, 1989. 8. 27 사임), 박치용 (1973. 3. 28 사임) 장로취임
1964. 12. 4	총회결의에 의하여 경북노회에서 경청노회로 가입
1965. 3	조차남 여전도사 부임 (1967. 12. 17 사임)
1965. 4. 26	경산교회 묘지등기
1966. 1. 30	이원상 전도사 부임 (1968. 6. 23 사임)
1967. 6. 25	교회전화 가설
1967. 12. 17	교육위원회 발족 (위원장 김기식 목사)
1968. 6	유위정 여전도사 부임 (1969. 9. 사임)
1968. 10. 8	교회 도서부 발족 (부장 신길순)
1969. 4	김주철 전도사 부임 (1970. 9. 9 사임) 신용협동조합 운영 (이사장 정주경)
1969. 10	김창덕 여전도사 부임 (1971. 9. 사임)
1970. 4. 28	전성문 장로장립 (1998. 11. 27 원로장로 추대)
1971. 1. 31	백천동 확장주일학교 조직 (부장 정주경)
1971. 11. 6	이만천 제12대 (위임) 목사 부임 (1986. 6. 16 별세)
1972. 4. 1	조정남 전도사 부임 (1976. 10. 15 사임)
1973. 3. 4	시설위원회 조직 (위원장 이만천)
1974. 4. 4	한재동 여전도사 부임 (1982. 12. 28 사임)
1975. 7. 13	백천동 확장주일학교에 기도소까지 허락
1975. 12. 21	백천기도소 백천교회로 발족
1976.	사정동 확장주일학교 조직 (부장 이문수)
1976. 9	목사관 신축

1977. 2. 16	박인표 전도사 부임(1979. 1. 5 사임)
1977. 4. 26	배경학(1992. 10. 8 정년은퇴), 박종길(1996. 12. 29 정년은퇴) 장로장립
1978. 9. 5	‘경산읍교회’에서 ‘경산교회’로 개명
1979. 1	남영섭 전도사 부임(1980. 1. 16 사임)
1979. 5. 24	경산교회설립 70주년 기념행사 방태호(1994. 12. 31 정년은퇴), 안문식(1995. 12. 31 정년은퇴) 장로장립, 송석근(1987. 11. 26 장로장립), 허남형(1987. 4. 이명) 집사장립, 백귀복(1985. 1 별세), 김홍인(1982. 7. 5 별세), 김봉희(1992. 10. 8 정년은퇴) 권사취임
1980. 2	김석진 전도사 부임(강도사 인허, 1981. 8. 30 사임)
1981. 1. 4	신효철 교육전도사 부임(1982. 12. 사임)
1981. 3. 31	경산유치원(원장 이만천 목사, 원감 신길순 장로) ‘대한민국 사회교육문화 금상’ 수상
1981. 11. 1	이철성 교육전도사 부임(1982. 12. 사임)
1982. 2. 4	윤혜숙 여전도사 부임(1982. 11. 26 사임)
1982. 6. 20	선교회 조직(회장 전성문)
1983. 1	홍승철 전도사 부임(1984. 5. 24 사임)
1983. 2. 15	이영숙 여전도사 부임(1989. 8. 27 사임)
1984. 4. 1	최상호 교육전도사 부임(1987. 3. 11 사임)
1984. 8. 5	김한봉 전도사 부임(1984. 11. 29 강도사 인허, 1985. 9. 목사안수, 1986. 10. 8 사임)
1985. 2. 11	삼북동 258-9 국유지 220m <sup>2</sup> 불하 경산교회 소유로 등기
1985. 4. 26	이정우 협동장로취임(1987. 11. 26 장로취임)
1986. 11. 6	이기봉 제13대(위임)목사 부임(1998. 12. 15 사임)
1987. 1. 4	이동호 교육전도사 부임(1988. 12. 25 사임) 이덕영 교육전도사 부임(1988. 12. 25 사임)
1987. 4. 26	신외숙(1992. 12. 은퇴), 서금희(1993. 12. 은퇴) 협동권사취임



1987. 5. 24	오준환 교육전도사 부임(1988. 8. 31 사임)
1987. 11. 26	송석근(2002. 3. 31 정년은퇴), 양일용(2007. 11. 30 은퇴, 2008. 1. 13 원로장로 추대), 김번(2000. 10. 29 정년은퇴), 이정우(1992. 10. 8 정년은퇴), 장로장립 신동욱(1994. 4. 28 장로장립), 소병준(1994. 4. 28 장로장립), 박달현(1994. 4. 28 장로장립), 박해동(1992. 10. 8 장로장립), 이문수(1994. 4. 28 장로장립), 정주성(1994. 4. 28 장로장립) 집사장립 이옥련(1996. 5. 15 별세), 박정옥(1998. 11. 27 정년은퇴), 신순길(2003. 12. 7 정년은퇴), 김열(1993. 12. 31 정년은퇴), 김분준(2005. 12. 25 정년은퇴) 권사취임
1987. 12. 20	강경구 협동집사취임(1988. 12. 31 이명)
1988. 10. 2	유영주 교육전도사 부임(1989. 10. 8 사임)
1988. 12. 22	유태삼 협동장로취임(1991. 12. 29 이명) 박중수 협동집사취임(1989. 6. 이명)
1989. 1. 1	이기락 교육전도사 부임(1990. 12. 30 사임)
1989. 1	손은목 교육전도사 부임(1990. 7. 29 사임)
1989. 11. 5	한성만 교육전도사 부임(1991. 12. 15 사임)
1989. 11. 12	경산유치원 폐원
1989. 11. 21	김청자 여전도사 부임(1992. 12. 15 사임)
1990. 9. 23	권성중 교육전도사 부임(1992. 12. 27 사임)
1990. 4. 1	삼북동 80번지 가옥(대지 69평) 매입
1990. 6. 6	이기봉 목사내외 성지순례
1990. 12. 16	김복규 전도사 부임(1992. 9. 목사안수, 1994. 4. 사임) 김청자 여전도사 부임(1992. 12. 15 사임)
1991. 4	주일오전예배 2부 예배드리기로 함
1991. 4. 7	채종업 교육전도사 부임(1991. 12. 15 사임)
1992. 1	김봉조(1992. 12. 31 은퇴), 이위신(2004. 3. 23 은퇴) 협동권사취임
1992. 1. 12	임성호 교육전도사 부임(1993. 12. 26 사임)

1992. 6. 14	손동현 교육전도사 부임(1993. 12. 26 사임)
1992. 6. 28	참빛 찬양선교단 조직(단장 신동윤)
1992. 10. 8	박해동(현재) 장로장립 이재홍(1994. 4. 28 장로장립), 김종태(1998. 11. 27 장로장립) 집사장립 이정화(1998. 11. 28 정년은퇴), 정의숙(2008. 6. 1 정년은퇴), 석금주(1994. 4. 28 정년은퇴), 황덕영(1996. 12. 29 정년은퇴), 김우한(1996. 12. 29 정년은퇴) 권사취임
1993. 1	정성조 협동권사취임(1998. 11. 이명)
1993. 1. 3	황분희 여전도사 부임(1996. 9. 30 사임) 조신숙 여교육전도사 부임(1993. 6. 27 사임)
1993. 2. 7	허정문 교육전도사 부임(1997. 10. 26 사임)
1993. 4. 13	삼북동 86번지 대지 13평 매입
1994. 1. 2	김신웅 교육전도사 부임(1996. 9. 30 사임) 신종민 교육전도사 부임(1995. 6. 25 사임)
1994. 4. 28	이문수(현재), 신동욱(현재), 박달현(2005. 3. 14 별세), 소병준(2007. 1. 14 은퇴), 정주성(2008. 12. 28 은퇴), 이재홍(2002. 10. 27 정년은퇴) 장로장립 김정수(2000. 11. 23 장로장립), 허원(2000. 11. 23 장로장립), 배석윤(1998. 11. 27 장로장립), 유재호(1999. 12. 31 정년은퇴), 이인수(2005. 3. 5 별세), 설천복(2003. 5. 2 장로장립) 집사장립 강정윤(2001. 12. 30 정년은퇴), 정숙기(2001. 12. 30 정년은퇴), 이경수(2004. 12. 26 정년은퇴), 윤영오(2004. 7. 11 정년은퇴) 권사취임
1994. 9. 4	최춘수 부목사 부임(1995. 4. 30 사임)
1995. 6. 25	고성현 교육전도사 부임(1996. 12. 8 사임) 정경현 협동집사취임(2000. 11. 23 집사취임)
1995. 8. 4	이경우 강도사 부임(1995. 9. 목사안수, 1996. 9. 30 사임)
1995. 12	신교육관 건립(건평 60평, 철골 조립식 2층)



1996. 1. 11	경산사랑의 집 운영(부장 곽은애)
1996. 6	이기봉 목사 부임 10주년 및 회갑기념 내외 미주여행
1996. 8	인도단독 선교 결정(교회명 임마누엘, 70평 임대)
1996. 10. 6	조경래 교육전도사 부임(1997. 12. 28 사임)
1996. 11. 1	이근수 부목사 부임(1999. 12. 28 사임)
1996. 11	장묘임 여전도사 부임(2000. 4. 30 사임)
1997. 1. 5	박현진 여교육전도사 부임(1998. 12. 13 사임)
1997. 3. 23	유도훈 교육전도사 부임(1999. 3. 28 사임)
1998. 1. 4	김종인 교육전도사 부임(1998. 12. 사임) 염종득 교육전도사 부임(1999. 12. 26 사임)
1998. 11. 27	김종태(2006. 12. 17 은퇴), 배석운(2008. 12. 28 은퇴) 장로장립 노철균(2003. 5. 3 장로장립), 박의순(2009. 9. 15 장로장립), 김기한(현재) 집사장립 배주이(2007. 12. 30 정년은퇴), 김혜순(2008. 7. 5 별세) 권사취임
1999. 1. 3	유정혜 교육전도사 부임(2001. 2. 4 사임)
1999. 2. 7	남기연 교육전도사 부임(1999. 8. 29 사임)
1999. 4. 1	박세봉 제14대(위임) 목사 부임(2009. 12. 13 사임)
1999. 5. 23	박형렬 교육전도사 부임(2000. 1. 1 전임전도사 취임, 2000. 10. 26 강도사 인허, 2001. 9. 목사안수, 2001. 12. 30 사임)
1999. 9. 19	김종균 교육전도사 부임(2001. 2. 4 사임)
2000. 1. 2	권억중 부목사 부임(2000. 12. 24 사임) 최상현 교육전도사부임(2002. 1. 6 전임전도사 취임, 2003. 11. 23 사임)
2000. 4	이슬비 전도대 및 사랑의 나눔회 발족(회장 김종태)
2000. 5. 7	박득숙 여전도사 부임(현재)
2000. 11. 23	박세봉 목사 위임 및 임직감사에배 김정수(현재), 허원(2006. 7. 9 정년은퇴) 장로장립 정경현(2003. 5. 3 장로장립) 집사취임, 장정수(현재), 김재수(현재), 신동윤(현재), 김형렬(현재), 방영원(현재) 집사장립



	서정숙(현재), 김복조(2007. 11. 4 정년은퇴), 이순자(현재), 이민자(현재), 김명옥(2008. 12. 28 정년은퇴), 조영선(현재), 서분조(2008. 12. 28 정년은퇴), 오성은(2007. 1. 14 정년은퇴), 주옥희(2006. 12. 17 정년은퇴), 김숙자(현재), 설희연(2005. 7. 3 정년은퇴), 윤태화(현재), 이덕자(현재) 권사취임
2001. 1	(하늘나라)전도대 발족(대장 김종태)
2001. 1. 21	장수호 전도사 부임(2001. 10. 강도사 인허, 2001. 12. 19 사임)
2001. 2. 18	이종천 교육전도사 부임(2002. 3. 31 사임) 박현애 교육전도사 부임(2002. 3. 31 사임)
2001. 6. 24	김정덕(2003. 5. 31 정년은퇴), 김정봉(2002. 3. 31 이명) 협동장로 취임 이남선(현재), 함금선(2003. 1. 5 이명) 협동권사취임
2002. 1. 1	송정목 부목사 부임(2003. 12. 28 사임) 특별전도위원회 발족(위원장 박세봉 목사, 부위원장 송정목 목사) 이슬비 성암산팀(팀장 김정봉) 파라솔팀(팀장 박해동) 새가족팀(팀장 정경현) 전도폭발팀(팀장 김종태) 기도후원팀(팀장 김정수) 재정후원팀(팀장 양일용)
2002. 1. 20	김재호 교육전도사 부임(2003. 11. 30 사임)
2002. 4. 7	조동호 교육전도사 부임(2005. 12. 25 사임)
2002. 4	강선옥 교육전도사 부임(2004. 6. 27 사임)
2003. 1	한성조 협동집사취임(현재)
2003. 3. 16	새 예배당 입당예배
2003. 5. 3	새 예배당 헌당 및 임직 감사예배 정경현(현재), 설천복(현재), 노철균(현재) 장로장립 김용배(현재), 이상진(현재), 이원국(현재), 박영태(현재), 김호근



	(현재), 문기찬(2009. 12. 13 정년은퇴), 이만태(현재), 이경우(현재), 최기문(현재), 송진욱(현재) 집사장립 김차선(현재), 강순덕(현재), 손덕아(현재), 김순자(현재), 정정자(현재), 곽은애(현재), 유남욱(현재), 김애옥(현재), 곽정희(현재), 유경생(현재) 권사취임
2003. 6. 29	2003 태신자 초청주일
2003. 12. 7	성정식 교육전도사 부임(2008. 12. 23 사임) 2003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경산교회당이 입선작으로 선정
2004. 1. 4	신재규 부목사 부임(2005. 12. 25 사임)
2004. 1. 25	이석호 협동집사취임(2009. 12. 이명)
2004. 2. 1	강상동 부목사 부임(2005. 12. 18 사임)
2004. 7. 4	2004 태신자 초청주일
2004. 10. 3	김재은 교육전도사 부임(2008. 12. 23 사임)
2005. 6. 3	경북노회 통합측으로부터 부동산 환수
2005. 6. 12	2005 새생명 축제
2005. 11. 18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개소
2006. 1. 1	오영주 부목사 부임(2006. 11. 26 사임) 이정훈 교육목사 부임(2008. 12. 23 사임) 박영자 협동권사취임(현재)
2006. 1. 15	정중재 부목사 부임(2008. 3. 16 사임)
2006. 5. 28	2006 태신자 - 새생명 축제
2006. 12. 31	김중대 부목사 부임(2008. 9. 21 사임)
2007. 1. 1	박계화 협동권사취임(현재)
2007. 1. 7	이운중 협동집사취임(현재)
2007. 6. 1	김재은 여전도사 부임(2007. 12. 31 사임)
2007. 6. 3	2007 새생명 축제
2008. 1. 1	구자덕 협동집사취임(현재) 강영분 협동권사취임(현재)

2008. 4. 20	이재돈 부목사 부임
2008. 5. 31	2008 예수 생명 큰잔치(태신자 전도운동)
2008. 9. 21	이병호 교육전도사 부임
2008. 12. 7	주필돈 강도사 부임(2009. 9. 9 목사안수, 부목사로 시무)
2008. 11. 23	한희섭 교육전도사 부임(현재)
2009. 1. 1	김광순 협동집사취임(현재) 양순옥 협동권사취임(현재)
2009. 1. 4	피승화 교육전도사 부임(현재)
2009. 3. 12	경산교회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첫 모임(명예위원장 박세봉 목사 위원장 박해동 장로)
2009. 3. 29	경산교회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발족 및 헌신예배(강사 정주경 은퇴목사)
2009. 5. 17	박종규 (선교사 파송예정)목사 부임
2009. 5. 21	경산교회설립 100주년 기념 주민초청 경로잔치
2009. 5. 31	민충남 협동장로 취임(현재) 박정숙 협동권사취임(현재)
2009. 9. 6	경산교회설립 100주년 기념 찬양예배(칠곡교회 임미누엘 찬양대)
2009. 9. 13	경산교회설립 100주년 기념 찬양음악예배(연합 찬양대 지휘 김형식 집사)
2009. 9. 15	경산교회설립 100주년 기념감사예배(강사 이원상 목사) 박의순(현재) 장로장립 박지순(현재), 강종수(현재), 전병렬(현재) 집사장립 박영순(현재), 서현자(현재), 이희순(현재), 이순임(현재), 김태순(현재) 권사취임 모 교회 방문의 날(Home coming day)
2009. 9. 14~16	경산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성회(강사 신호철 목사)



## 9. 참고문헌

### 1. 서적

- 1) 새문안교회 85년사, 1973
- 2) 새문안교회 100년사(1887~1987), 1995
- 3) 초량교회 100년사(1892~1992), 1994
- 4) 초량교회 선교역사, 1992
- 5) 대구제일교회 70년사, 1964
- 6) 대구제일교회 80년사, 1975
- 7) 대구제일교회 90년사, 1983
- 8) 대구제일교회 110년사(1893~2003), 2004
- 9) 연동교회 100년사(1894~1994), 1995
- 10) 연동 주일학교 100년사(1907~2007)
- 11) 매계교회 100년사(1894~2004)
- 12) 개복교회 110년사(1894~2004), 2004
- 13) 사월교회 100년사(1898~1998), 1999
- 14) 구미상모교회 100년사(1901~2001), 2005
- 15) 반야월교회 70년사, 1975
- 16) 반야월교회 100년사(1905~2005), 2005
- 17) 포항제일교회 100년사(1905~2005), 2005
- 18) 범어교회 100년사(1906~2006), 2007
- 19) 내곡교회 100년사(1907~2007), 2008
- 20) 의성읍교회 80년사(1908~1988), 1988
- 21) 하양교회 100년사(1909~2009), 2009
- 22) 부전교회 50년사(1932~1982), 1982
- 23) 동로교회 50년사(1946~1996), 2001

- 24) 대구서부교회 40년사(1948~1988), 1988
- 25) 대봉교회 40년사, 1988
- 26) 대구서현교회 40년사(1953~1993), 1993
- 27) 대구서현교회 선교이야기(선교 35년사) (1972~2007), 2007
- 28) 영지교회 40주년사(1953~1993), 1993
- 29) 충현교회 25년사(1953~1978), 1979
- 30) 대구제일대봉교회 30년사(1960~1990), 1990
- 31) 세계기독교회사, 송락원
- 32) 역사신학강의, 박영관, 1998
- 33) 경북교회사(1894~1923)
- 34) 야소교장로연감, 1940
- 35) 40Years In Korea
- 36) 조선예수교 장로회사기, 1928
- 37) 세계기독교 회사
- 38) 한국 교회사, 이상규, 1998
- 39) 역사신학 강의, 박영관, 1998
- 40) 경북기독교 교회사, 박창식, 2001
- 41) 대구장로교회사 연구, 이재원, 1996
- 42) 박덕일 역사, 2006
- 43) 한국교회와 역사신학, 이상규, 2007
- 44) 이재원 교회기념 대구기독교역사 논문집, 2006
- 45) 겨자씨 속에 담은 천국-대구경북 선교의 아버지 안의와, 김종순,  
김병희, 2009
- 46) 한국선교의 개척자들, 장봉학, 2009
- 47) 우리의 피난처, 장봉학, 2004
- 48) 한국기독교 선구자 이수정, 김수진, 2006



- 49) 동산의료원 100년사(1899~1999), 1999
- 50) 부.경 교회사 연구 제16호, 이상규, 2008
- 51) 2003 한국 건축문화대상, 2003
- 52) 경산군지, 1971
- 53) 경산시지, 1997

## 2. 문서 및 화보

- 1) 경산교회 당회록(1918~현재)
- 2) 경산교회 제직회록(1933~현재)
- 3) 경산교회 공동의회록
- 4) 경산교회 요람
- 5) 경산교회 주보철
- 6) 경상노회록
- 7) 경북노회록 4권, 2008
- 8) 경청노회록, 1987
- 9) 경산교회 100년사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철」, 2003
- 10) 경산교회「조사철」
- 11) 사진으로 보는 경산교회 100년사 25권
- 12) 초량교회 사진으로 보는 100년사
- 13) 사진으로 보는 대구제일교회 100년사, 2000
- 14) 반야월교회 100년사 화보집, 2005



은혜로 달려온 100년

성심으로 달려갈 100년

특별기고



## 또다시 백년을 위한 기도

경산교회 원로장로 전성문

내가 군에서 제대를 한 후 정착한곳이 이곳 경산이다. 아직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을 반가이 맞아준 곳이 바로 경산교회였다. 일직이 부모님을 여의고 일가친척 하나 없는 곳으로 찾아왔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다. 경산교회가 바로 내 아버지집이요, 따뜻한 어머니의 품속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경산교회와 더불어 55년의 세월을 살았고, 청년이었던 내가 이제 80대중반으로 접어들었다. 나는 늙었지만, 100년이 된 경산교회는 여전히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산성(山城)과 같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따뜻하던 어머니의 품도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의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다. 1970년 4월 28일, 내가 42세가 되던 해에 장로가 되었다. 그리고 70세가 되던, 1998년 만 28년간 봉직을 하고 은퇴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원로장로가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내 삶의 여정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는 경산교회를 찾았고, 새벽마다, 주일마다 경산교회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나와 우리가정의 울타리는 경산교회였다. 사회생활과 사업에 있어서도 나는 언제나 두려울게 없었다. 경산교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가장 보람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당을 신축한 일이다. 장로로서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건축위원장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재정살림을 책임지고 있었으니 감회가 남다르다. 몇 번의 위기도 있었고, 나도 절망하고 낙심하여 쓰러질 번 한 적도 있었지만, 역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다. 현대식 교회당을 세워 헌당을 한 후 나는 눈물로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교회당의 외양이나 구조가 뛰어나 건축계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선정되기도 했으니 보람되고 기쁠 수밖에 없었다. 옛날 교회당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견뎌야 했던 일들이 주마등



처럼 지나갔다. 그러나 옛날 교회당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보존한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역사가 없는 오늘은 없기 때문이다. 비록 구식 건물이기는 해도 돌로 쌓아 올린 교회당 자체도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경산교회 성도들의 너무나 많은 눈물과 웃음과 믿음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모신 목사님들은 모두 네분이다. 정열적으로 목회를 하시던 김기식 목사님이 계셨다. 교회의 기초를 다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임하신 분이 이만 천 목사님이시다. 우리교회에서 거의 15년을 봉직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나 언제나 학자 같은 모습으로 교인들의 신앙을 한 단계 높여주신 분이다. 후임으로 오신분이 이기봉 목사님이다. 13년간 훌륭하게 봉직하신 후 많은 교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명예롭게 은퇴하시고 지금은 대전에서 여생을 보내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은 박세봉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 무탈하게 교회를 이끄시며 언제나 성실함으로 교인들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훌륭한 분들을 목사님으로 모셨으니 나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다.

1982년 선교회를 조직했던 일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라고 하신 성경말씀대로, 우리는 이 선교회를 통해 선교사 파송을 비롯해 직간접적으로 많은 선교 사업을 벌였다. 혼자서는 미약하여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선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을 수 있었다. 100여 년 전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찾아와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교회는 상상하기 어렵다. 선교 사업은 그들로부터 빛진 믿음의 선물을 제3세계로 전하는 일이다. 나는 아직 그 선교 사업에 ‘진행 중’이다. 선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죽는 날까지 헌신할 것이다. 이제 나는 내 남은 여생동안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주여 앞으로 또다시 100년, 200년이 지나도록 경산교회는 여전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튼튼한 산성(山城)으로 남아있게 하소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가 찾아가 안길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남아있게 하소서. 그 사랑 속에서 언제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경산교회의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 경산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경산교회 원로장로 양일용

암울한 이 땅에 비바람 몰아칠 때  
 한 알 복음의 씨앗 떨어져 싹 틔웠네.  
 온갖 풍상 겪으며 열매를 맺어  
 경사스런 산위에 아름답게 피었네.

오늘은 새롭게 그어진 새하얀 출발선에서  
 다가올 백년을 바라보는 분수령에서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소리 나는 악기들아  
 큰 소리 높은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세  
 우리 모두 힘차게 소리쳐 외치세  
 “주여 오늘을 복되게 하소서”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앞길이 캄캄할 때 기도로써 길을 열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씀에서 길을 찾고  
 가슴이 답답할 때 찬송으로 기쁨을 회복했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만 본받아 살게 하소서



새로운 역사의 명암은  
구하고 찾아 두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달려 있소이다.

산고의 진통 끝에 생겨난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고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한 선교의 열매들이 있고  
말씀의 초장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복음전파를 위한 전도의 역군들이 있고  
모든 것을 품에 안은 도고의 기도들이 있어도  
모두가 애쓰고 힘쓴 흔적뿐입니다.  
주여 이작은 열매 거두어 주소서

오늘은 새롭게 단장된 구원의 방주선에서  
백주년의 깃발높이 휘날리며  
백년을 하루처럼 달려  
지는 듯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다함께 힘을 합쳐 힘차게 달려보세  
할렐루야 아멘



## 백주년을 뒤돌아보며

경산교회 원로장로 양일용

주의 피로세운교회 사랑스런 경산교회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 아니던가  
일제의 모진폭과 눈물로써 막아내고  
신사참배 어려움도 주 은혜로 이겼다네

주일성수 위해서는 힘을 다해 애를 썼고  
봉사할 일이 생기면은 자원하여 참여했고  
성도들이 어려울 때 밤을 새워 기도했고  
나그네와 피난민을 정성으로 접대했네

주의성전 건축위해 몸을 바쳐 희생했고  
초건목피 먹으면서 문전옥답 바쳤다네  
온 교회가 정성 다해 예배당을 지었으며  
바칠 것이 없는 성도 노력봉사 하였다네

수백리길 떠나면 길 달구지에 돌을 신고  
한 단 두 단 쌓을 때에 눈물로써 쌓았다네  
손과 발에 피멍들고 땀범벅이 되어서도  
주의성전 바라보며 감사 찬송 하였다네

주의말씀 그리워서 사경회가 열리면은  
시작부터 금식기도 몇 날이고 계속되고



첫날부터 철야기도 끝날 까지 계속했네  
 온 교회 성령 충만 기쁨으로 마쳤다네

이웃교회 떠나면 길 부흥회가 열리면은  
 일찍이도 저녁 먹고 서둘러서 달려갔네  
 북풍한설 찬바람도 주 사랑에 녹았다네  
 깊은 밤에 늦은 밤길 기쁨으로 돌아왔네

지난날이 그리울 때 성탄절이 생각났고  
 새벽송 수십리길 기쁨으로 다녔다네  
 따끈한 차 한 잔에 얼은 몸이 녹아나고  
 성도들의 정성들이 추억으로 기억되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다름이야 없을쏘냐  
 산고의 진통 끝에 교회들이 생겨났고  
 개척교회 어려움도 아름답게 꽃 피었네  
 지난날 모든 것이 주은혜가 아닐쏘냐

여보시오, 성도들아 말씀 따라 덕을 세워  
 영혼구원 위해서는 전도에 힘을 쓰고  
 사랑의 수고로써 봉사에 열매 맺고  
 모든 성도 품에 안고 도고기도하여보세

오늘은 백주년의 즐겁고도 참 기쁜 날  
 다가올 백주년을 마음에 그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승리의 그날까지  
 다함께 힘을 합쳐 힘차게 달려보세



## 경산교회와 나

최영호 (崔永浩) (Yong-ho Ch'oe)

하와이대학교 명예교수

나는 경산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내가 1958년 유학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떠날 때까지 경산은 나의 본거지였다. 반세기 이상을 미국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에 경산은 항상 정든 고향으로 남아 있었다. 이제 여든이 머지않은 나이가 되어 경산교회의 창립100주년을 맞아 나의 어렸을 적의 기억을 회고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나는 경산시 중방동에서 출생하였고 경산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내가 다니던 일제 강점기에는 옥계국민학교라고 불렀다.) 당시는 중학교가 6년제였는데, 대구의 경북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갈 형편이 되지 못해 대구의 사범대학 (오늘날 경북대학교의 전신)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대학 공부를 시작한지 1주일정도 되었을 때 한국동란이 일어났다. 내 나뉠의 순진한 열정과 애국심으로 그 해 7월에 학도병으로 군에 지원하여 육군 장교로 복무하였다. 38선을 넘고 평양을 거쳐 청천강(淸川江)까지 갔다가 중공군(中共軍)이 참전하는 바람에 후퇴했다가 다시 서울을 탈환하는 등 전쟁의 모든 과정을 전장에서 몸소 겪었다. 8년을 넘기는 군복무를 끝내고 육군소령으로 제대하여 늦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미국에서 학부 과정은 일리노이(Illinois)주와 애리조나(Arizona)주에서 마치고 시카고대학(University of Chicago)에서 역사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시카고대학은 졸업생과 교수출신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세계에서 가장 많

이 배출한 학교로 명성이 높은 명문 사학이다.(아주 어렸을 적 에 미국 선교사의 자동차를 처음 보고 신기하게 여겨 먼지를 날리며 달리던 그 차를 뒤쫓던 내가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핵 분열 실험에 성공한 시카고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사학위를 취득할 무렵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의 동아시아연구소에서 연구교수(Research Fellow)로 2년 동안 연구하였다. 그 뒤로 나는 하와이대학교(University of Hawaii)의 역사학과에서 교수로 35년간 교편을 잡다가 몇 년 전에 퇴임하여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다.

부모님께서서는 슬하에 육남매를 두셨다. 그 가운데 나는 둘째이다. 내 위로 형인 성호(聖浩)는 일본에서 프랑스의 유명한 통신사 AFP의 기자로 오래 근무한 뒤 현재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내 밑으로 첫째 여동생 순호(順浩)는 박훈주(朴勳舟) 목사 (부산과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대구대학교 교수가 됨)와 결혼해 대구에 살고 있으며, 다음 남동생 관호(寬浩)는 미국 시카고(Chicago)에 살고 있다. 그 밑에 남동생 신호(信浩)는 현재 미국 핏츠버그(Pittsburgh) 교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 막내인 여동생 혜호(惠浩)는 울산에 살고 있다. 형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남매는 모두 경산시 중방동에서 났다. 그렇지만 형을 포함해 우리 형제들 모두 경산교회에서 자랐다.

우리의 부모님은 당시로서는 일찍 개명하시고 젊으셨을 때 기독교를 받아들인 분들이다. 아버님 최재학(崔在鶴) 장로는 자인면(慈仁面)에서 태어나 어려서 한학(漢學)을 공부하시다가 대구의 계성학교(啓聖學校)를 다니셨다. 졸업은 못하시고 3년을 수학하셨다. 어머님 서해수(徐海壽) 권사는 남천면(南川面)에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에 기독교인이 되셔서 대구의 신명학교(信明學校)를 수학하셨다. 두 분 모두 미국인 선교사의 영향으로 일찍 교인이 되시고 그들의 교육을 받아 평생을 교회에 바치신 분들이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버님은 일제 치하에서 민족운동을 하시다가 많은 핍박을 받아 크게 고생하셨다. 이로 인해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 형제들은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배달을 하였고 나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다. 특히 중학교 시절 등록금을 내어야 할 때마다 제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고통을 겪은 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럴 상황이니 당연히 운동화는 신을 형편이 되지 못해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다녔다. 겨울에도 고무신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었다. 나는 4, 5, 6학년 때 학예회 때마다 독창을 맡았는데 무대에 고무신을 신고 올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새 운동화를 장만할 집안 형편은 더더욱 아니었다. 하는 수 없이 대구역전에 있던 연매시장에서 구입한 중고 운동화로 학예회에서 독창도 하고 오페라도 하였다. (우리 형제들은 모두 음악을 좋아한데다 타고난 자질도 있었다. 나도 경산교회 성가대원 시절 갖고 닦은 실력으로 중고등학교 때와 미국 대학 재학 시절 독창을 하였고, 하와이에 온 뒤로도 호놀룰루 교향악 합창단(Honolulu Symphony Orchestra Chorus)에 입단하여 현재까지 30여 년을 테너로 계속 합창을 하고 있다. 내 나이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경산교회의 은혜에 오로지 감사할 뿐이다.)

내가 나고 자라던 때는 우리나라가 경험한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1930-40년대 일본 식민지였던 한국은 일본군국주의가 종말로 치달으며 발악하던, 직접 당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내가 태어난 1931년에 일본은 이른바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일으켰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中日戰爭)을 시작하였고, 1941년에는 진주만(眞珠灣)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과 한반도 전역은 온통 군국주의에 휩쓸려 들어갔고 한국은 그로 인한 모든 피해를 직접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경산교회도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먼저 내 부모님이 겪으신 이야기부터 꺼내야 하겠다. 아버님은 계성학교를 다니시다 경산군청에 근무하셨다. 어렸을 때 한학과 유학을 공부하셨는데 미국 선교사에게서 신학문을 배우신 분이였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시작되던 즈음이어서 지방 관공서인 경산군청(慶山郡廳)은 조선총독부에 속해 있었다. 군



청에서 근무를 시작하신 아버님은 그리 오래 일하지 못하셨다. 독실한 기독교신앙과 한국을 사랑하시는 굳건한 민족주의 사상을 지니신 아버님이 일제 치하에서 관공서 근무를 오래하시기 힘들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총독부 공무원으로 충실하려면 일본제국에 충성을 서약하여야 했고, 또한 일본 신화(神話)의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믿어야만 했다. 그리고 매일 일본 천황이 있는 “도쿄”를 향하여 경배하여야만 했다. 이는 아버님의 믿음과 애국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경산군청의 관리직분을 사직하셨다. 지금 추정해볼 때, 계속 근무를 하셨다면 아마도 아버님은 일본 총독부하에서 상당한 직위에까지 오르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가족은 상당한 재물과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님은 자신의 종교적 믿음과 나라를 위한 대의를 택하시고 일개인이 얻을 수 있는 부귀를 버리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자라야만 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믿음과 사랑의 삶을 기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아버님이 사직을 하셨으니 집안 살림을 꾸리는 것은 어머니가 많이 맡으셨다. 처음에는 샅바느질을 하시다가 태평양전쟁이 일어나 나라 전체가 식량 부족으로 고생할 때 어머니는 이른바 “보따리장사”를 시작하셨다. 전라도(全羅道)에 가서 쌀을 사서 오시고, 부산(釜山)에 사과를 가지고 가시고, 해방 후는 강원도(江原道)의 동해안 지역까지 가서(6.25직전까지) 보따리장사를 하셨다. 여름방학 때 나도 몇 번 같이 보따리를 들고 부산으로 가 어머니를 돕기도 했다. 여관에 들어갈 형편이 되지 못해 부산역(당시 초량역이라 했음) 마당에서 자곤 했다. 어머니는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신 분이셨다. 자상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매우 온후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였다. 어머니는 많은 희생을 하시면서 아버님을 도우시고 우리 자식들을 기르셨다. 나는 평생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교회 일에도 성심껏 일을 하셨다. 내가 인생의 길에서 헤매지 않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에 힘입은 것이라고 나는 믿고 감사드린다.



우리 집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가정예배를 보았다.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여,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쳤다. 이 가정예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빼먹을 수 없었다. 우리 형제들은 가정예배를 통하여 신구약을 통독하였고 또한 많은 성경구절을 암송하기까지 하였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그때 우리 형제들이 즐겨 암송한 대목으로 나는 지금도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내가 어린 시절 다녔던 경산교회당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나의 머릿속에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경산교회의 옛 모습을 추억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교회 마당에 있던 작은 정원이다. 그 정원은 교회 정문을 들어가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한반도 지형을 본뻘었다. 벽돌로 낮은 담을 세웠는데 그것은 한반도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 한반도 안에 나무와 꽃을 심어 예쁘게 꾸몄는데 나는 지금도 한반도의 지도를 보면 어릴 때 경산교회 마당에 있었던 한반도 모습의 정원을 떠올린다. 그 자그마한 정원은 나라를 잃은 한국인들에게 한국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일제는 이 한반도 모양의 돌담을 철거해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산교회는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였던 것 같다.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일어난 사건 하나가 아직도 내 기억에 잘 남아있다. 그것은 일본인 초등학교 교장선생이 새로 임명되어 와서 일어난 일이다. “오노 마레스케”라고 하는 이름의 새로 부임한 교장은 키가 작으면서도 성격이 매우 고약한 사람이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까다롭게 취급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오노 고랑말코”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갑자기 조회 때 특별지시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돌아오는 주일 때부터 모든 학생은 교회에 나가면 안 된다는 명령이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이었다. 어린 나로서는 큰 고민이었다. 어떻게 교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나 걱정이었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은 단호하셨다. 차라리 학

교에는 못 갈지언정 교회 예배를 빠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다음날 학교에 나가니 교장이 조회시간에 교회에 나간 학생들은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약 10명 정도가 앞으로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 교장은 자기 명령을 어겼다고 우리들을 운동장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시켰다. 초겨울 제법 쌀쌀한 날씨에 반바지를 입고 오전 몇 시간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려니 다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팠다. 다행히 체벌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러나 교회에 가는 것을 막으려는 압력은 계속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주일학교 예배 등을 열심히 다녔다.

경산교회는 초창기부터 민족주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교회였다. 박덕일(朴德逸) 목사 등이 편집한 <경북교회사(慶北教會史), 1894~1923>는 1919년 삼일운동(三一運動)이 일어난 후 경산교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

“삼북교회(三北教會)는 구제회(救濟會)를 조직하여 생산무자(生産無資)와 이병무의자(罹病無依者)를 진급(賑給)하며 또 독립사건(獨立事件)으로 각처 재감인가족(在監人家族)에게 보급하였더라.”

즉 삼북동에 있는 경산교회는 구제회를 조직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호물자를 보급하고 또 삼일운동으로 인하여 감옥에 잡혀간 사람들을 위하여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삼일운동에 경산교회 교인들이 직접 참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들이 만세운동에 참가하였고 수감되었다는 기록이 없어 이에 대해 현재 알 수가 없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아버님도 당시 20대의 청년으로 참가하시고 수감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아버님은 일본 경찰에 여러 번 잡혀가셨다. 내가 초등학교 초급학년 때 기억이다. 한번은 아버님이 오랫동안 집에 오시지 않으셨다.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집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니 아주 무섭고 괴상한 모습을 한 사람이 방안에 앉아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겁이 나 밖으로 피하려고 하였다. 그때 어머니가 나의 팔을 잡으시면서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라고 하셨다. 자세히 보니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아버님이셨다. 머리카락과 수염이 길게 자라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과 몸에 심한 상처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 경찰에 수감되셨다가 고문을 당하신 것이다. 아버님은 그 후에도 일본 경찰에 자주 잡혀 가셨다. 나 자신 당시 너무 어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인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아버님은 항일활동과 교회일 때문에 고초를 겪으신 것이었다.

내가 초등학교 초급학년 때 일본은 한국인을 이른바 일본의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극단의 방법을 썼다. 그중에 하나가 일본인의 가정용 신전(神殿) “카미타나(神棚)”를 한국인에게 배포하여 강제로 경배시키려 한 사건이다. 당시 초등학교 상급생이었던 형이 하루는 학교에서 “카미타나”를 하나 받아왔다. 모든 가정에서 그것을 집안에 모시고 아침저녁에 경배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시련이었다. 나의 부모님께서서 우리 집 바로 옆에 사시던 한명수(韓明秀) 장로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다. 아버님은 고민 끝에 그것을 변소에 가져다 두셨다. 일본인의 신(神)을 집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신 것이다. 그런데 곧 큰 문제가 생겼다. 학교와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카미타나”를 제대로 잘 모시고 있나 검사를 한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그것을 방안으로 가지고 와 벽에 걸어 놓았다. 그리고는 거기에 커튼을 덮어 두었다. 보통 때는 안 보이게 해 놓고는 조사를 올 때 커튼을 들면 보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피하였다.

일본의 핍박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에 닥친 시련은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일본 신사(神社)에 절을 하라는 강제적인 명령은 교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일본은 한국인들을 이른바 “황국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전국의 각 면(面) 단위에 일본 신사를 설치했다. 경산읍에도 지금의 경산중앙초등학교가 있는 자리에 신사(神祠)를 세웠다. 그곳은 숲으로 둘러 쳐져진데다 그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자그마한 공원도 있어 우리들의 좋은 놀이터였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가 그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큰 소란이 벌어졌다. 갑자기 경찰에 포위되어 우리 교회 교인이신 어른 분들 수십 명이 신사 앞에 끌려 온 것이다. 강제로 신사참배를 시키기 위해 경찰이 칼을 휘두르며 교인들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나의 아버님과 어머니도 그 가운데 계셨다. 모두들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끌려 다니시고 계셨다. 경찰이 자리를 정리하고 신사에 경배하라는 구호를 크게 외쳤다. 경배 구호가 나오자마자 동시에 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크게 통곡하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다. 그 처참한 광경이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특히 그때의 애처로운 통곡의 소리는 너무도 선명하게 여전히 귓가에 맴돈다. 그렇게 많은 어른들이 통곡하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보았다. 역사기록을 보면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은 1937년이라고 적혀 있다.

일본이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한 핍박은 신사참배로 끝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에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자기들의 “신도(神道)”를 받아들여도록 강요하였다. 이를 위해 1939년 서울과 함경북도 나남(羅南)에 이른바 호국신궁(護國神宮)을 만들고, 부여(扶餘)에 거대한 부여신궁(扶餘神宮)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 부여신궁을 건설하는 데에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동원되었는데 경산교회 교인들도 강제로 동원 당하였다. 당시 이명석(李命錫) 목사님과 아버님을 비롯하여 젊은 교인들이 끌려갔었다. 모두들 궁핍하기 그지없었는데도 자기 비용을 쓰면서 강제로 징발 당한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우상숭배를 강요당해야 하는 일본 신궁을 짓는데 강제로 노역하기까지 했으니 그 분들의 비통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철없는 아이라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아버님은 돌아오신 후 여러 날 동안 상심하여 눈물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다.



일제 치하에서 겪은,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치욕스런 일은 이른바 “창씨성명(創氏姓名)”이었다.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본의 탄압은 더욱 극심해져 갔다. 일본은 1938년 공식적으로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였다. 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것을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한국인을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명분을 내세워 1939년 창씨성명을 강요하였다.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식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강요하였다. 내 부모님께서서는 이것을 처음에는 여러 번 거부하셨다. 그러나 당시 학교에 다니던 우리들에게는 큰 문제였다. 학교에 나가면 매일같이 선생이 왜 새 일본이름으로 등록하지 않느냐며 압박을 가하였다. 나중에는 새 일본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까지 협박하였다. 부모님은 완고하게 거부하시다가 결국은 물러서셨다. 압력과 협박을 견디실 수 없었다기보다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일본인 이름을 쓸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듯하다. 부모님께서서는 당신들 평생에 크게 후회하시며 회개하신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는 일본신사에 절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식 성씨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하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지만 일제가 강요한 이 두 가지 일만은 못 이기신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께서는 두고두고 후회하시며 회개하셨다.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비통한 기도를 올리시는 모습을 나는 여러 번 목격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아버님은 교회 일에 헌신하셨다. 경산교회를 위해 집사, 장로로 봉사하시면서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도우셨다. 남산교회, 송림교회, 하대교회 등 시골 교회는 가난하여 목사나 전도사를 둘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아버님은 이 교회들을 위해 전도사나 조사로 근무하셨다. 그래서 아버님은 주일날이면 매번 이 교회들을 돌아다니시며 예배를 인도하셨다. 경산읍에서 약 20-30리가 되는 거리의 교회를 걸어서 왕래하셨다. 나중에 자전거가 생겨 자전거로 다니셨는데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자갈길을 낡은 자전거로 다니셨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이 교회들로 가서서 인도하고 돌아오셨다. 그리고 우리 가정예배 때도 매번 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남산, 송림, 하대”라는 이름은 지금도 가끔 내 귓가에 울릴 때가 있다.

정확한 년도는 기억하기 어렵지만 일제 치하에서 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시기에 경산교회가 교회당을 신축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무슨 용기로 교회를 신축하려고 결정하였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당시의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적 현실은 한국인들에게 최악의 상황이었다. 일제의 정치적 탄압은 절정기였고 사회적으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극히 불안한 상태였다. 더구나 경제적으로는 많은 백성들이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던 형편이었다. 이러한 사정인데도 새로운 교회를 짓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오히려 환상에 사로잡힌 만용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었던 과감한 결단이었다. 당시 이명석 목사님과 교회 어른 분들이 새 교회당 설계를 펴놓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어린 눈에 비친 교회당의 청사진은 무척 신기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후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인지 건축용 자재인 화강석이 교회마당을 꽉 채우기 시작했다. 물론 그러다보니 우리들의 놀이터는 자연히 없어져 버렸고 우리는 높다랗게 쌓아 올려둔 화강석 위로 올라가 놀기도 하였다. 그러면 어른들은 다친다고 야단을 치기도 하셨다.

그렇지만 성전 신축계획은 결국 일제의 지배가 종식될 때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완성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건축용 석재들은 교회 앞마당에 그냥 쌓여 있었다. 이 쌓아둔 돌에 관한 기억이 하나 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였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그 돌에 걸려 넘어져 턱을 다쳐 피가 난 적이 있다.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 때 얻은 작은 흉터가 아직도 내 턱밑에 남아 있다. 지금도 이 흉터를 만질 때마다 화강석이 쌓여 있던 경산교회당을 나는 생각한다. 새로 성전을 짓는 일은 해방이 된 후에 다시 시작하여 완성하였다. (이에 대한 정황을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내가 경북중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는 드디어 해방을 맞았는데, 당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시키지 않고 전쟁을 빌미삼아 전 인원을 군수공장 또는 군사시설에 동원되어 노동일을 강요당하였다. 우리 학년은 대구비행장 건설공사에 동원되어 막노동을 하였다. 해방이 되었다고 하여 경산의 집으로 돌아오니 경산시 내는 온통 자유만세를 부르는 환호성으로 들끓었다. 당시 경산읍내에서 유일한 교회였던 경산교회에서는 많은 교인들이 모여 거의 매일같이 철야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일제의 핍박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한편은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비는 기도였다. 즉, 감사와 애痛的 기도였던 것이다.

해방을 맞은 즉시의 나의 심경은 솔직히 착잡하였다. 철저한 일본군국주의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린 마음으로 한편은 일본이 정의로운 성전(聖戰)을 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가정예배에서나 모든 기도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오직 “이 고통스러운 전쟁을 하루속히 빨리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만 간절히 기원하셨다. 왜 일본이 승리하도록 기원하시지 않으시나 이상하게 생각한 때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아버님의 기도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였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가 되어, 부모님의 기도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경산군 전체로는 일본의 식민 통치가 갑작스럽게 종식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났다. 하루아침에 관공서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고 경찰력은 거의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공권력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국준비위원회 경산군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 慶山郡委員會)가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한편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라고 불리기도 했다. 나의 아버님 최재학(崔在鶴)



장로가 주동이 되어 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위원장으로 김용규(金容圭) 목사를 모시고 아버님은 총무부장으로 위원회 전체 일을 실제로 맡아 운영하셨다. 나는 그때 중학 2학년생으로 아버님 밑에서 심부름을 열심히 다녔다. 위원회의 공고를 각 곳의 벽에 붙이고, 사람들을 찾아 연락을 하는 등 아주 바쁘게 뛰어다녔다. 이 위원회가 경산군청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미군정이 들어서기 까지 공권력의 공백을 메워주었다. 나는 경산군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경산교회가 처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일제의 압박으로 모든 조직체가 해산당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경산군에서 조직된 단체나 기구가 교회를 빼고는 전혀 없었다. 즉, 해방이 되었을 때 경산의 유일한 조직적인 단체는 경산교회 하나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산교회는 많은 사회 활동을 하였고 경산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의 지원을 받아 김용규 목사와 나의 아버님 등이 경산을 위하여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건국준비위원회의 많은 활동 가운데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색다른 일화 하나를 여기에 기록하고 싶다. 그것은 일본인 피난민들을 돕는 일이었다. 일본이 전쟁에 패배한 뒤 한반도 전체와 중국 및 만주 지역에 있던 일본인들이 자기 고국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는 실로 수백만 명의 민족 대이동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주로 경부선 기차로 부산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극히 혼란한 상황에서 기차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했다. 기차가 가다가 몇 시간동안 서 있거나 심지어는 몇 날 동안 서 있기도 했다. 그러한 와중에 이들 피난민들은 기차에 타고 여러 날 밥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아버님은 이 일본인 피난민들을 돕자고 하셨다. 이 원호사업은 인민위원회와 경산교회의 공동 작업이었다. 어머님이 교회 부인회를 동원하여 주먹밥을 만들고 물과 사과 등을 경산역으로 가지고 가서서 기차에 있는 일본인 피난민들에 나누어 주셨다. 나도 친구들과 함께 이 일을 위해 많이 뛰어다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수로 여기던 일본 사람들을 위해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도주의의 실천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행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당시 경산군에서 조직되어 활동한 건국준비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건국준비위원회를 좌익 활동을 한 단체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 때 나는 비록 어렸었지만 경산군 위원회를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처음 위원회를 조직할 때 주도적인 인물이 나의 아버님이셨고, 위원장은 김용규 목사, 또 치안부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장한우(張漢羽) 선생이 선정되셨다. 그리고 위원회 실무를 총괄하는 총무부장에 경산교회 장로이셨던 아버님이 맡으셨다. 이 분들은 결코 좌익 성향의 인물들이 아니었다. 장한우 선생은 나중에 좌우익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무력을 동원해 격심하게 싸우던 와중에, 좌익세력의 테러로 살해당한 인물이었다. 해방직후 정부와 치안이 공백 상태에 놓였을 때 얼마 동안은 사상적 대립이 없었다고 나는 본다. 당시 무정부 상태라는 어려운 과도기에 위원회는 사상적인 색깔을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공익과 공안을 유지하기 위해 훌륭한 역할을 하였다고 나는 믿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경산교회 교인들도 중요한 활동을 하였다.

그 후 나라 전체가 정치-사회적으로 좌우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 여파로 경산에도 치열한 사상 투쟁이 벌어졌다. 공산당, 민주청년동맹, 농민동맹 등 좌익 세력단체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한다는 그들의 호소에 많은 군민들이 유혹당하여 끌려 들어갔다. 그러나 이 세력들을 막아낼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었다. 있다 해도 매우 미약하였다. 아마도 이들 세력을 견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조직이 경산교회였다고 생각한다. 해방 후 지극히 혼란한 시기에 경산교회는 경산의 유일한 종교단체로서 경산 사회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 안정을 지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나는 본다.

1945년 8월 해방되면서 다시 자유를 찾은 경산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신앙 활동에 새로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해방이 될 때까지 일제의 핍박으로 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기독교는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꾼” 또는 “예수쟁이”라고 부르면서 교인들을 조롱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나 자신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은 수모를 직접 당하였다. 여전히 나라 전체가 기독교를 이단시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해방 이후에 크게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6.25를 겪은 후 기독교가 급성장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열성을 다한 복음운동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역사적으로 몇 가지 객관적인 요소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나는 본다.

그 객관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일제식민지 통치하에서 기독교회가 차지한 중요한 지위이다. 일제는 아예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일본을 거역하는 모든 결사와 단체들을 해산시키거나 무력화하였다. 그러나 유독 기독교 교회만은 해산시킬 수 없었다. 일제가 비록 기독교를 억압하고 핍박하였어도 교회라는 조직 자체를 해산시킬 수는 없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비록 “신사참배” 등을 강요당했어도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를 지키면서 회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교회는 민족의 교회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일제가 억압적인 통치를 하던 암흑시대에 교회가 유일한 저항조직이었다. 이런 사실을 해방이후 일반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어 교회의 위상이 한국사회에서 드높아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 하나의 요소는 해방 직후의 극심한 혼란과 우리 한국인들에게 형언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긴 6.25동란이다. 처참한 전쟁과 혼란을 겪은 많은 국민들은 심신이 극도로 지쳐 정신적 안식처를 갈구하고 있었다. 경산군에서도 해방직후 좌우대립의 사상 투쟁은 격심하여 상당수 사람들이 살해당하기도 하였다. 한국동란 때 지리적인 이유로 인해 경산군 대부분이 비록 전쟁의 직접적인 살육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군민들이 전쟁에 동원되어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목숨을 잃은 이들도 허다하였다. 교회는 이들 전쟁에 지친 군민들에게 정신적인 안식처를 마련해주었다. 형극의 시대에 영혼의 안식을 갈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 다음 요소로는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기독교의 관련성을 들 수 있다. 한국동란을 겪은 한국인들은 지독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면서 이를 탈피하고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믿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와 사회 전체가 이른바 후진성을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이 후진성을 극복하고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는 모델은 아무래도 서구세계였다. 그리고 서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지도적 위치에 있던 미국이 한국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었다. 그러면 “최선진국인 미국이 그러한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였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가능한 답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였던 것이다. 서구문명의 본질과 근본을 추구해 들어갈 때, 그 답이 기독교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래서 빈곤과 후진성을 극복하고 나라와 사회를 근대화하려는 한국인들은 기독교를 찾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객관적인 요소만으로 교회의 부흥은 있을 수 없었다. 교인들이 열심히 복음운동에 매진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경산교회에서도 부흥회, 사경회, “교인배가운동” 등 교세 확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당 신축이었다. 일제시대에 중단되었던 교회 신축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치 및 사회적으로 몹시 불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도 힘들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하여 통화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폭락하였다. 당시, 어린 나의 눈으로 보아도 교인들의 재정형편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교인들은 자기 재산을 내놓고 연보하였다. 우리 집 옆에 사시던 한명수 장로님은 자기 소유의 과수원을 몽땅 교회를 짓는 데 바치신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이 과수원은 “후미끼리”의 현 제일방직 옆에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명수 장로의 아들이며 나의 친구인 한시완 장로(韓始完 서울 거주)로부터 들었다.) 이밖에 내가 모르고 있던 희생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믿는다. 나의 부모님께서도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교회를 새로 짓는데 많이 연보하셨다. 이렇게 전체 교인들이 최선의 힘을 다하였지만 그래도 재정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러자 장로님들이 경북의 각 지역 교회에 다니시면서 도움을 청하기

도 하셨다. 그렇게 하여 교회당이 서기 시작하였다. 화강암으로 짓는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거의 매일 같이 나는 부모님과 같이 교회에 나가 교회당을 짓는 광경을 신기하다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연로하신 이종성, 정원서 장로님들이 높게 올라가는 건물 위에 가 기쁨의 미소를 띠면서 건축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나의 기억에 선하다. 드디어 교회당을 낙성할 때는 당시 대학생인 이창우(李昶雨)(이종성 장로 아들, 후에 영남대학교 부총장을 역임) 엄재권(嚴在權) 등 청년들의 제의를 따라 교회명판을 한글로 “경산예배당”이라고 써서 돌에 새겼다. 그 글씨는 당시 경산초등학교 교사였고 나중에 동시(童詩)를 쓴 이종태(李鍾澤)가 썼다. 한글이 아직 전용되지 않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선진적인 사고였다.

해방이 되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마련하였다. 감사의 특별예배를 보고 시가행진도 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8.15 독립기념일에는 매년 경산극장에서 경산교회에서 주최하는 특별음악회를 가졌다. 교회 찬양대가 합창을 하고 중창, 독창 등 화려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그때 찬양대를 지휘하신 정덕조(鄭德祚) 집사가 크게 수고하셨다. 정덕조 집사는 정희순(鄭禧淳)(정재순 鄭在淳 목사의 동생) 장로의 외아들로 음악학교를 다니시지 않았으면서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하여 서양음악에 조예가 매우 깊었다. 그의 지도하에 교회찬양대가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당시 경산은 음악의 불모지였다고 할 수 있다. 경산읍 전체에 피아노는 안부자(安富者) 집에 단 한 대가 있었고, 오르간은 교회와 초등학교에 작은 것이 하나씩 있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덕조 집사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경산교회의 음악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하여 경산 일대에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경산교회의 성가대가 처음으로 혼성사부합창으로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덕조 집사의 지휘로 가능했다고 나는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정덕조 집사는 나의 외가 쪽으로 5촌 아저씨가 되어 나는 특별한 친분 속에서 그분의 지도를 많이 받았다. 내가 평생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된 동기는 그분의 영향이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후 교회의 청, 장년들이 주동이 되어 실천한 행사 가운데 또 하나 기록해두어야 할 것은 경산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연극이다. 교인들이 창작 연극을 경산극장에서 공연한 것이다. 극의 제목은 “모세”라고 하여 모세의 일대기를 연극화하였다. 이국인의 노예 상태에 있던 유태인을 해방시키고자 그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모세의 이야기였다. 이제 막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한국의 형편이 구약의 히브리 민족의 사정과 비슷하다고 여겨 이에 우리도 모세의 교훈을 배워야만 한다는 뜻이었다고 본다. 지금 생각하니 연극의 내용은 그 당시 사정에 아주 적절한 것이었다. 모두들 연극을 열심히 연습한 덕분에 극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으니 대성공이라고 말할만했다.

또 하나 특기할만한 사항은 함석헌(咸錫憲) 선생님의 방문과 강연이다. 이명석 목사님이 떠나시고 현태용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목회를 하셨다. 현목사님과 평안북도 동향인이라 하시면서 함석헌 선생님이 경산교회에 오셨다. 그 후 오태환(吳泰煥) 목사님이 오신 뒤에도 함석헌 선생님은 몇 해 동안 매년 경산을 방문하시고 목사관 사랑채에 머무셨다. 계시는 동안 교인들과 교회 밖의 분들을 상대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셨다. 중학생이었던 나도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그 당시에는 함선생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말씀의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분의 강연이 뭔가 매우 의미 깊은 말씀이었다고만 하는 인상을 받았었다. 나중에 내가 좀 더 지적으로 성숙해진 뒤 선생님의 글을 읽고 나는 무척 놀랐다.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역사> 그리고 <씨알의 소리> 등에 쓰신 내용을 알고 보니 우리 경산교회에서 강의하신 것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선생님은 경산교회에 머무시면서 자신의 종교적, 철학적 사색을 심화하시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계신 것 같았다. 선생님은 경산교회를 방문하시면서 연구하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글로 발표하신 것이 분명하다

고 확신한다. 경산교회는 한국의 “양심(良心)”이었고 심오한 사상가였던 함석헌 선생님이 자기의 사상을 정리하신 곳이 된 것이다.

1960년대 내가 시카고대학에서 학위 과정에 있을 때 함석헌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다. 그 때 뵈고 경산교회 일을 말씀드리니 선생님은 반갑게 기억을 하시면서 오태환 목사님, 이종성 장로님, 최재학 장로님들의 안부를 물으셨다. 그 뒤 내가 <Sources of Korean Tradition>(콜롬비아대학 출판부에서 2000년 출판)이라는 한국 전통 사상을 대표하는 글들을 영역하고 편집, 집필하면서 이 책에 선생님을 소개하고 선생님의 글 일부를 포함시켰다.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한국동란이 발발했다. 그날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집에 돌아오니 아버님이 경산경찰서 간부인 박영해 집사님과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북한의 공격으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경산군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아버님과 치안문제 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를 하시는 것이었다. 전쟁 상황에 대하여 연일 신문에서는 남한 쪽에서 북으로 진군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안심하라고만 할 뿐이었다.(당시 경산읍에서 라디오를 가진 집은 몇이 되지 않았고 그때 나는 신문 배달을 계속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전선의 실제상황은 신문보도와는 정반대였다. 북쪽으로부터 피난민들이 내려와 대구와 경산 일대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전쟁 상태가 우리에게 불리하여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갔다. 이때 우리 몇몇 사람들이 뜻을 모아 일종의 비밀조직을 만들었다. 양일봉 선생이(사월교회 양찬우 목사 아드님) 주도하여 교회청년 10명 정도를 모아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우리를 지도한 양일봉 선생은 일본에서 유학하고 해방 후 경산에 와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정치활동을 하던 분이였다. 이창우, 엄재권, 한시완, 조창수, 그리고 나와 몇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북한의 침공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핵심이 되어(그 때 “혜계모니”라는 새 단어를 배웠다)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직의 이름은



나의 제의에 따라 “성혈단(聖血團)”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그 뒤, 나와 한시완, 조창수 등 나의 연배 친구들이 곧바로 군대에 가게 되어 이 성혈단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없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 생을 통틀어 잠깐이나마 비밀단체에 가입한 유일한 기간이었다. 활동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당시로서는 모두들 비장한 결심이었다.

나는 1950년 7월 자원하여 군에 들어갔다. 육군 장교로 임관해 한국동란에 참전한 것이다. 38도선을 넘어 평양을 거쳐 청천강까지 진격하였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였다. 서울 재수복작전에 참가하고 휴전할 때까지 군에서 근무하였다. 8년 동안의 긴 군복무를 마치고 1958년 9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군에 있을 때 미국 육군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을 받기도 했다.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사랑하는 부모님과 경산교회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의 덕택이라고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군에 들어간 뒤로 나는 육체적으로는 경산교회를 떠나 있는 형편이 되어버렸다. 8년간 군에 복무하는 동안 휴가를 받아 잠깐 집을 방문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산교회에 나갈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다. 그리고는 제대하자마자 미국으로 떠났다. 비록 내 몸은 경산교회를 떠났지만 내 마음은 항상 경산교회에 머무르고 있었다. 군에 있을 동안 그리고 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경산교회는 내 마음속에 따듯한 고향으로 언제나 남아 있었다.

내가 미국으로 떠난 뒤 나의 부모님 최재학 장로, 서해수 권사가 주도하셔서 새로 경산중앙교회를 창건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편으로 정든 경산교회를 떠나는 것이 섭섭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이것은 경산교회의 발전이고 교세 확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의 고향인 경산에서 기독교가 발전하는 과정에 얻은 당연한 결실이라고 여겨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경산교회에서 출생하였고 경산교회에서 자랐다. 나의 미국 생활도 이제 반 세기가 넘어 간다. 내 인생에서 얻은 어떤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어릴 때 경산교회에서 자라면서 얻은 것에서 기원했다고 나는 본다. 달리 말하면, 경산교회는 내 모든 것의 뿌리가 되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산교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경산교회의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을 기원한다.

순례로 알려진 100명 설교로 알려진 100명

## 경산교회 100년사(1909-2009)

초판 1쇄 인쇄일 2010. 6. 20

초판 1쇄 발행일 2010. 6. 26

발행인 / 김 광 남 목사

저 자 / 정 주 경 목사

편집인 / 신 동 옥 장로 (사기편찬위원회 위원장)

정리 및 컴퓨터 봉사 / 김 은 정 집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교회

Ⓧ712-020 경북 경산시 삼북동 80번지

전화 사무실 : 811-7194 당회실·사기편찬실 : 815-7143

목양실 : 814-9594

홈페이지주소 [www.godislife.or.kr](http://www.godislife.or.kr)

제작처 / 서문기획출판인쇄

전화 (053)253-2893, 252-8913

[dgsm8913@hanmail.net](mailto:dgsm8913@hanmail.net)

※이 책의 모든 저작권은 경산교회에 있습니다. 무단 전제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